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1차)

| | | | | | | | | | | | | | | |
|-------------------------------|--|----------|----|-----|----|--|----|--|-----|---|-----|--|-----|--|
| 북클럽 팀명 | 북 스트리트 (book street) | | | | | | | | | | | | | |
| 운영일시 / 장소 | 일 시 : 2023년 10월 13일(금요일) / 장 소 : 책방마실 | | | | | | | | | | | | | |
| 참석자 명단 | 학번 | 2020**** | 이름 | 김*원 | 학번 | | 이름 | | | | | | | |
| | 학번 | 2020**** | 이름 | 안*민 | 학번 | | 이름 | | | | | | | |
| | 학번 | 2022**** | 이름 | 우*수 | 학번 | | 이름 | | | | | | | |
| | 학번 | | 이름 | | | | | | | | | | | |
|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p>[진행 도서] 정대건 -급류</p> <p>1. 줄거리 1분 요약하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김*원</td> <td>정대건의 '급류'는 지방 도시 '진평'을 배경으로 열일곱 살 동갑내기인 '도담'과 '해솔'의 상실과 만남 그리고 사랑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도담의 아버지와 해솔의 어머니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망하고 난 이후에 극심한 감정변화를 겪고 어른이 되어가는 도담과 해솔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냈으며 상실을 딛고 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위안을 얻을 수 있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안*민</td> <td>도담의 아빠와 해솔의 엄마가 불륜관계로 발전하고, 몰래 데이트하는 현장을 도담과 해솔이 목격한다. 그들은 너무 놀라 물속으로 숨어버리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다. 도담은 바람을 핀 아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그를 원망하고, 해솔은 자신이 엄마를 구해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자책한다. 이들은 같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를 다른 방식으로 극복하며 결국 상처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준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우*수</td> <td>강 하류에서 두 남녀의 시신이 발견되는데 그들 각자의 자식인 도담과 해솔은 그 둘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깨닫고 완전히 무너진다. 이들은 상처를 채 수습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고, 서로에게 죄책감을 가진 채 살아간다.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난 그들은 사랑에 빠지지만, 과거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만다. 한참 후에 상처를 제대로 마주한 이들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td> </tr> </table> | | | | | | | | 김*원 | 정대건의 '급류'는 지방 도시 '진평'을 배경으로 열일곱 살 동갑내기인 '도담'과 '해솔'의 상실과 만남 그리고 사랑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도담의 아버지와 해솔의 어머니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망하고 난 이후에 극심한 감정변화를 겪고 어른이 되어가는 도담과 해솔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냈으며 상실을 딛고 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위안을 얻을 수 있다. | 안*민 | 도담의 아빠와 해솔의 엄마가 불륜관계로 발전하고, 몰래 데이트하는 현장을 도담과 해솔이 목격한다. 그들은 너무 놀라 물속으로 숨어버리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다. 도담은 바람을 핀 아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그를 원망하고, 해솔은 자신이 엄마를 구해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자책한다. 이들은 같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를 다른 방식으로 극복하며 결국 상처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 우*수 | 강 하류에서 두 남녀의 시신이 발견되는데 그들 각자의 자식인 도담과 해솔은 그 둘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깨닫고 완전히 무너진다. 이들은 상처를 채 수습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고, 서로에게 죄책감을 가진 채 살아간다.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난 그들은 사랑에 빠지지만, 과거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만다. 한참 후에 상처를 제대로 마주한 이들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
| 김*원 | 정대건의 '급류'는 지방 도시 '진평'을 배경으로 열일곱 살 동갑내기인 '도담'과 '해솔'의 상실과 만남 그리고 사랑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도담의 아버지와 해솔의 어머니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망하고 난 이후에 극심한 감정변화를 겪고 어른이 되어가는 도담과 해솔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냈으며 상실을 딛고 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위안을 얻을 수 있다. | | | | | | | | | | | | | |
| 안*민 | 도담의 아빠와 해솔의 엄마가 불륜관계로 발전하고, 몰래 데이트하는 현장을 도담과 해솔이 목격한다. 그들은 너무 놀라 물속으로 숨어버리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다. 도담은 바람을 핀 아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그를 원망하고, 해솔은 자신이 엄마를 구해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자책한다. 이들은 같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를 다른 방식으로 극복하며 결국 상처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 | | | | | | | | | | | | |
| 우*수 | 강 하류에서 두 남녀의 시신이 발견되는데 그들 각자의 자식인 도담과 해솔은 그 둘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깨닫고 완전히 무너진다. 이들은 상처를 채 수습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고, 서로에게 죄책감을 가진 채 살아간다.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난 그들은 사랑에 빠지지만, 과거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만다. 한참 후에 상처를 제대로 마주한 이들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 | | | | | | | | | | | | |

2. 토의

① “실제 삶에서 우리는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렵지만 극 중 등장인물은 존재가 명확하잖아.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좋아.”라고 무경이 말했는데 그럼 ‘급류’에서 도담과 해솔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
|-----|--|
| 김*원 | 나는 도담과 해솔이 ‘연대’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도담과 해솔의 관계를 보면 그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상처는 언젠가 낫기 마련이지만 상처가 낫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약을 들이붓고 밴드만 붙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20대 초반의 도담과 해솔의 관계는 상처 위에 붙은 밴드같다. 방수도 아닌, 조금만 슬픔이 밀려와도 축축히 젖어서 떨어져버리고 상처는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 차례 이별을 겪고, 둘은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과거를 되돌아본다. 그때 그건 사고였을 뿐이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제야 상처는 아문다. 같은 아픔을 겪고 성장한 그들은 비로소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며 하나가 된다. |
| 안*민 | 나는 이 둘은 ‘죄책감’이라는 키워드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도담은 자신이 아빠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결국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해솔은 그때 도담을 말리지 못해서, 자신이 너무 어리고 약한 탓에 도담의 아버지와 자신의 어머니를 죽게 했다는 죄책감이 시달린다. 둘은 죄책감 때문에 죽고 싶어하지만 한편으로 죄책감 때문에 살기도 한다. |
| 우*수 | 도담과 해솔 모두 스스로를 혐오하고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린다. 도담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아무나 만나는 등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반면 해솔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삶이 덤으로 얻어졌다고 생각한다. 앞뒤 재지 않고 죽어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불길로, 사고 현장으로 뛰어드는 해솔의 모습은 자해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

② 도담과 해솔의 사랑은 왜류였을까, 급류였을까.

| | |
|-----|---|
| 김*원 | 나는 도담과 해솔의 사랑이 책의 제목처럼 ‘급류’라고 생각한다. 도담과 해솔이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보면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만큼 빠르고, 알기만 하다. 친구에서 각자 부모의 불륜으로 도담은 아버지를, 해솔은 어머니를 잃은 악연에서 연인까지의 과정은 급 |
|-----|---|

| | |
|---|---|
| | <p>류에 휩쓸리기 전 나뭇가지라도 붙잡는 것처럼 다급하기만 하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사랑은 빠른 속도로 흐르는 물처럼 쉽게 헤어 나오기 어려운 법이다.</p> |
| 안*민 | <p>와류와 급류는 언뜻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있다. 도담은 말한다. 소용돌이에 빠지면 숨을 참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살 수 있다고. 질척이는 사랑 앞에서 서로를 상처 주며 끌어안는다. 마치 그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도담은 정작 사랑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같다. 같은 상처를 지닌 해솔을 과거의 상처를 도담과 함께 마주보려 하지만, 도담은 그런 해솔의 몸과 마음에 모두 상처를 내며 사랑에서 빠져나오려고만 한다.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서 수영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도담과 해솔의 사랑은, 잠잠히 흐르던 그들의 삶에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급류라는 큰 흐름 가운데 발생한 와류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p> |
| 우*수 | <p>나는 급류도 와류도 아닌 그냥 ‘사랑’으로 보고 싶다. 그들이 급하게 사랑에 빠진 것도 맞고,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는 것도 맞지만 원래 그런 것이 사랑 아닌가. 남들이 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당사자들은 이해하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 말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존재하고, 결국 그 모든 걸 ‘사랑’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관계 또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다.</p> |
| <p>③ 이 소설이 궁극적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p> | |
| 김*원 | <p>급류는 흔하디흔한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잘 살펴보면 사랑이 관계를 유지하는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아는 것, 미안함을 표현할 줄 아는 것, 아닐 땐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긋는 것 등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사랑만으로는 아무것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p> |
| 안*민 | <p>본 텍스트의 줄거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해솔과 도담의 사랑’이다. 하지만 작가는 상처를 극복한 두 인간상을 통해 단순히 인간의 강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이 상</p> |

| | | |
|--------------------|------------|---|
| | | <p>처를 극복하는 과정은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을까.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서로를 곁에 두고 있음에도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지 못한다. 심지어 도담은 자신의 불행이 가장 큰 다이아몬드로 여기며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짓는다. 하지만 결국 도담과 해솔이 수영하는 법을 알았을 때는 진평을 마주했을 때라고 할 수 있다. ‘한때는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흐르는 상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쓰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 글과 함께 떠나보내고 싶습니다.’ 소설 내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작가 또한 본인의 상처를 직접 마주하고 ‘급류’라는 소설과 함께 떠나려보낸다. 따라서 작가는 ‘어떤 상처라도 시간이 해결해줄거야!’라는 마냥 희망찬 결과를 전달하는게 아니다. 아무리 깊게 진 흉터라도 그 상처를 마주하고, 충분히 슬퍼하고, 결국 내가 스스로 그 상처를 흘려보내 주기까지. ‘급류’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수영하는 법을 알려주기를, 작가는 의도하지 않았을까 싶다.</p> |
| | <p>우*수</p> | <p>정대건 작가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물을 흔히 ‘생명의 원천’이라 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물 안에서 숨을 못 쉬니 ‘죽음’과 관련 있잖아요…. 신기한 게 우리도 물에 ‘빠지다’처럼 사랑에 ‘빠지다’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도 똑같아요. 폴인러브(Fall in Love)에서 폴(Fall)이란 단어, 좋은 것이면서도 위험성을 내포하잖아요.” 나는 이 말이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바라고 생각한다. 살게 하지만 또 죽게 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진 것들 속에서 우리는 빠지지 않고 헤엄치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p> |
| <p>3. 명문장 공유하기</p> | | |
| | <p>김*원</p> | <p>“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이별을 받아들이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별하며 사는 게 현대인들 우울의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가장 꾸밈없는 모습을 보이고 내밀했던 친구를 잃고 살아간다는 게. 세상에서 자신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을 잃는 거잖아요. 그게 누적되는 거 같아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서 잊고 치유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p. 193)</p> <p>비교적 최근에 이별하고 이 문장을 읽으니 너무 와닿았다. 사실 연인 사이의 관계가 그렇듯 결혼이라는 제도</p> |

| | | |
|--|------------|--|
| | | <p>로 묶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별할 것을 알고 있지 않나. 분명 알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별을 막상 마주하고 나니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정말 나를 잘 아는 사람을 잃고,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웠다.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우리 관계가. 나는 언젠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겠지만 대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사실이 슬펐다. 그래서 도담과 해솔의 관계가 부럽기도 했다. 서로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이자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이라는 사실이 특별하게만 느껴져서 더 그랬을 지도 모른다.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이제는 이별을 생각하기 보다는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다.</p> |
| | <p>안*민</p> | <p><i>“너 소용돌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알아...?”</i> <i>“수면에서 나오려 하지 말고 숨 참고 밑바닥까지 잠수해서 빠져나와야 해.”(p.31)</i></p> <p>나는 이 부분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인 것 같아서 명문장으로 골랐다. 도담과 해솔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용돌이에 빠지듯이 사랑에 빠지고, 자꾸 벗어나려고 할수록 계속 가라앉지 않나. 결국, 도담과 해솔이 내면 깊숙한 곳에 있던 상처를 대면하고 해결하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악연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걸 보면 우리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절대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도 당당히 마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 그 순간은 지나간다는 것을 도담과 해솔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었다.</p> |
| | <p>우*수</p> | <p><i>“영원히 살 것처럼이 아니라,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해솔을 사랑하겠다고.”(p.290)</i></p> <p>이 문장은 도담이 해솔에게 남기는 편지이자 독백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해솔에 대한 사랑이 돋보이는 부분이라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다. 영원한 끝이 없이 계속되는 시간을 의미한다면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시간을 의미한다. 우리는 쉽게 영원한 사랑을 바라지만 사실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잊고 있던 사랑의 진정한 가치와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문장인 것 같아서 선정했다.</p> |

4. 인상 깊었던 장면 공유하기

김*원

도담과 해솔이 헤어지기 직전에 싸우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전까지 해솔은 죄책감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도담에게 맞추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이 순간만큼은 해솔이 본인에게 솔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망가지 마. 너도 책임이 있잖아.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p.170)

해솔의 애절한 외침은 도담에게 닿지 않고 도담은 결국 이별을 고한다. 도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에서 해솔이 얼마나 그날의 기억을 외면하고 있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을 때 눈물을 흘릴 뻔했다. 너무도 별거 아니지만, 또 너무 현실적인 이유로 헤어지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 연인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사실이 슬펐고, 소설과 달리 현실에서는 그대로 헤어져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씁쓸했다. 나 또한 이렇게 외면했던 상처나 순간이 있었는지 돌이켜 생각해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다.

(+안*민: 씁쓸했다는 말에 크게 공감된다. 사실 나도 소설이기 때문에 돌이 재회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만약 도담과 해솔의 상황이 현실이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나쁜 사람이 되고 끝이 났을 것 같다.)

(+우*수: 소설에서라도 상처를 마주하고 극복하는 경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던 것도 있었다. 회피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달까.)

안*민

승주가 도담에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이제 다른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만 같았다.

"도담 씨, 그런 얘기 들어 본 적 없어? 7년인가 지나면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가 교체된대. 10년이면 도담씨 온몸의 세포가 교체된 거야. 그러면 이제 도담 씨도 그 사람도 그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닐까?"(p.227)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워낙 자주 들어서 그런지 이 문장이 새롭게 느껴졌다.

(+우*수: 아직도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

| | | |
|--|------------|---|
| | | <p>는지?)</p> <p>나의 경우만 해도 10년 전의 나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요즘은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다.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이가 들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취향이 확고해지면서 변하는 것 같다. 저 문장을 보고 내 생각이 편협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는 이유로 멀어졌던 친구들에게 연락해봤는데 확실히 달라진 걸 느껴서 신기하기도 하고 즐거웠다.</p> |
| | <p>우*수</p> | <p>초반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해솔과 도담이 몰래 연애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간질간질하고 첫 연애의 풋풋한 느낌이 잘 살아있는 장면이라 좋아한다.</p> <p><i>어둠 속에서 도담은 해솔의 입술과 코와 눈을 차례로 훑었다. 해솔의 눈가를 간질이던 도담의 혀가 해솔의 눈동자에 닿았다.</i></p> <p>"음, 짜. 엄청 짜." (p.44)</p> <p>서로의 모습을 담은 매개체인 눈동자를 훑는 행위를 통해 소유를 표현한다고 생각해서 인상적이었다.</p> <p>(+김*원: 눈동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인상적이라고 느꼈던 것인지?)</p> <p>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시각은 사랑에 빠지는데 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각을 담당하는 눈 그중에서도 눈동자의 맛을 보는 행위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인상 깊은 장면으로 골랐다.</p> |

2023년 10월 13일

참가자대표 : 김*원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2차)

| | | | | | | | | |
|-------------------------------|--|--|----|-----|----|--|----|--|
| 북클럽 팀명 | 북 스트리트 (book street) | | | | | | | |
| 운영일시 / 장소 | 일 시 : 2023년 10월 20일(금요일) / 장 소 : 책방마실 | | | | | | | |
| 참석자 명단 | 학번 | 2020**** | 이름 | 김*원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20**** | 이름 | 안*민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22**** | 이름 | 우*수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 이름 | | | | | |
|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p>[진행 도서] 한강-검은 사슴</p> <p>2. 줄거리 1분 요약하기</p> | | | | | | | |
| | 김*원 | <p>이 작품은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만남에 따라 내용이 전개된다. 인영을 통해 명윤을 알게 되고, 의선을 알게 된다. 또한, 인영과 명윤을 통해 장을 알게 되고, 장을 통해 임을 알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각각의 아픔과 서사를 가진 채 존재하던 인물들을 모두 알게 된다. 머물러있는 것 같던 이야기에서 이 모든 등장인물의 서사가 합쳐져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된다. 이를 통해 필자는 모든 만남이 필연적이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각자의 인연이 닿아 지금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지만, 이 등장 인물들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큰 의미를 남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겪은 각각의 아픔을 알아봤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내면에 끌리는 모습을 보인다. 각자가 겪어온 삶과 상처는 각기 다르겠지만, 그들은 전부 하나의 공통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아닐까. 이것은 필자의 삶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장인물들처럼 나 또한, 나에게 닿아있는 인연들과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도 하나의 공통점이 존재하기에 만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리고 운명론적으로 말하자면, 나와 인연들이 모두 필연적이었는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우리의 삶에서도 시사할 점을 준다고 생각한다.</p> | | | | | | |

| | | |
|--|------------|--|
| | <p>안*민</p> | <p>인영은 잡지사에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다. 그러다 같은 건물에 있는 제약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의선을 알게 된다. 그 둘의 만남은 같은 건물에 있는 각기 다른 회사에 다닌다는 것을 빼고는 별다른 만남이 없었다. 그러다 인영은 의선이 정신을 놓고 나체로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평소 그녀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게 된다. 그것은 의선을 자신의 집으로 거두겠다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등장한 인영의 후배인 명윤은 우연히 인영의 집에 들렀다가 의선에게 본인도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낀다. 어느 날, 의선은 인영이 아끼던 필름과 사진을 모두 불태웠고, 그대로 의선은 인영의 집에서 도망친다. 명윤은 우연히 의선을 마주쳤고, 그녀를 끈질기게 따라가 의선의 반지하 방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아침이 되고, 의선은 또 떠난 뒤였다. 명윤과 인영은 그녀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황곡으로 가게 된다. 그러다 탄광에 들어가 사진을 찍는 장을 알게 되었고, 지난 그의 삶에 대해 인터뷰를 하게 된다. 그는 임이라는 광부의 도움으로 사진을 찍게 되었다고 말하며, 임의 삶도 말해준다. 이렇게 이 작품은 인물들의 관계성을 꼼꼼하게 구성하며,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이 작품은 냉소적인 등장인물들과 전체적으로 어둡고 차가움이 느껴지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으로 필자는 어딘가 위안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작품은 절망적인 배경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이 두드러지게 하지만, 그런데도 인간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포용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p> |
| | <p>우*수</p> | <p>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어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둠에도 밝아지는 결말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둠은 절대 그렇지 않다. 즉, 인간의 깊은 심연을 말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작품은 어느 날, 의선이 사라지고 난 후, 그녀를 찾기 위해 폐광촌으로 떠나는 흐름으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또한, 의선을 찾으러 떠난 그곳에서 인영과 명윤, 장이 겪고 있는 어둠을 보여준다. 이 어둡고 고요한 도시에서 그들은 각각 자신의 어둠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동시에 독자들에게 그들의 어둠이 존재하는 이유와 어둠을 마주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필자는 그들이 각각 품고 살아가는 어둠에 관해 탐구하고 싶다고</p> |

| | |
|--|---|
| | <p>생각했다. 각자의 어둠은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말이다. 또한, 그들을 응원하게 된 것 같았다. 그들에게 각각 존재하는 어둠을 그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뚫고 나가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그들의 어둠이 끝내 밝혀지기를,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말이다.</p> |
| | <p>2. 토의</p> <p>① 책의 제목인 '검은 사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p> |
| | <p>김*원</p> <p>'검은 사슴'이 의미하는 바는 의선이었다고 생각했다. 막장 광부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인 '검은 사슴'과 의선의 모습이 닮아있기 때문이다. '검은 사슴'은 어두운 막장에서 나와 해를 보는 것이 그의 평생을 바친 열원이었다. 의선 역시, 하루에 몇 시간만 햇빛이 드는 곳에서 나고 자란 아이였고, 그러므로 햇빛을 갈구할 수밖에 없었다. 의선과 '검은 사슴'이 닮아있는 것은 이것뿐이 아니었다. '검은 사슴'은 평생을 어두컴컴한 막장 속을 돌아다니다가 죽게 되거나 그토록 바라던 햇빛을 봐도 녹아내리고 만다. 사실상 '검은 사슴'에게는 죽음이라는 선택지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 점은 의선 역시 마찬가지다. 의선은 남들과 같은 평범함을 가지는 것을 바랐을 뿐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의선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고, 그녀는 미처갈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검은 사슴'과 같이 의선의 결말도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검은 사슴'에게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듯이 의선도 죽게 되거나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녀가 온전하지 못한 지금의 상태가 되기까지 어쩌면 선택지가 없었다. 그러므로 '검은 사슴'은 의선 그 자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p> |
| | <p>안*민</p> <p>'검은 사슴'이 의미하는 것은 의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의선의 삶을 비유하자면, 어둠에서 태어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의선은 말 그대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그녀의 어두웠던 일생을 말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 모습은 '검은 사슴'의 존재 배경을 떠올리게 한다. 광부들이 말하는 '검은 사슴'도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탄광 속에서 탄생하였고, 그곳에서 살아간다. 또한, '검은 사슴'과 의선 둘 다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끝내 죽게 되는 결말을 맞이한다. 특히나 의선은 어둠 속에서 태어난 후, 어둠을 벗어나기를 간절히 희망했지</p> |

| | | |
|---|------------|---|
| | | <p>만, 사실 그녀는 어둠 밖에서는 똑바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그 이유는 의선의 어둠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기 때문이리라. 그러므로 그녀는 무언가를 잊기 위해 애썼다. 그것이 그녀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이었을 것이기에. 그러므로 사랑했던 남자를 기억에서 지우고, 바다를 찍은 사진을 불태웠다. 그러므로 '검은 사슴'과 의선의 인생이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p> |
| | <p>우*수</p> | <p>'검은 사슴'은 의선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더 큰 범주에서 바라볼 때 개인과 사회의 어두운 내면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각자의 어두운 내면들은 '검은 사슴'을 통해 대변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검은 사슴'은 깊고 긴 막장에서 볼 수 있는 존재이다. '검은 사슴'은 광부들이 파 내려간 깊고 깊은 막장만큼 깊이 있는 고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즉, 깊은 막장에 다다르고 난 후에야 '검은 사슴'을 만날 수 있듯이 깊은 고찰 끝에 알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의선의 행동을 통해서 '검은 사슴'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깊은 어둠이 있다. 그러니 그것은 의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의선을 비롯해 우리의 모습도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의선은 빛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를 선택한 인물일 뿐이다. '검은 사슴'은 웅덩이와 풀이되고, 의선은 빛과 화염이 되었을 뿐이다.</p> |
| <p>② 각자 삶을 살아갈 때 어둠이 커지는 순간을 어떻게 겪어내는가?</p> | | |
| | <p>김*원</p> | <p>필자는 어둠이 커지는 즉, 우울함이 커지는 순간을 겪게 되면,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한다. 먼저, 우울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울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내 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더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과도하게 많고 깊은 생각들이 우울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자는 그것들에 잠식당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우울의 근원을 나로 설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본인을 탓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모든 사람이 나를 탓해도 나만큼은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나에게 진정 문제가 있다면, 성찰</p> |

| | | |
|-------------------------------------|------------|--|
| | | <p>끝에 해결해야겠지만, 그런데도 원인이 나에게 없을 땐 나를 지지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나를 탓해도 나만은 나를 믿어주는 것이 당연하니까 말이다. 이렇게 나를 견고하게 만들며 그 어둠을 극복한다.</p> |
| | <p>안*민</p> | <p>필자는 내 안에 어둠이 커지는 순간을 맞이하면, 그 감정을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어두운 감정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기고, 그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행동하면서 내가 겪고 있는 어둠보다 밝은 감정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산책을 하거나 그런데도 감정이 없어지지 않을 때는 울기도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 필자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느낀다.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작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당시의 순간은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길 바랄 만큼 지친 상태이지만, 야속하게도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괜찮아지고 만다. 이제 이러한 순환을 깨달았기에 필자는 감정을 해소하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 그 뒤에는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p> |
| | <p>우*수</p> | <p>필자는 삶을 살아가다 어둠이 커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어두운 감정을 애써 부정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어두운 감정들은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생긴 것이며 그것들 또한, 나의 감정 중 일부이기 때문이다. 살아가면서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며 잘못된 감정으로 치부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늘 밝은 감정만 가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둠을 오히려 즐기려고도 한다. 아직 어둠을 달고 일어날 만한 동력이 없다면,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다. 어둠 속에 너무 깊게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겠지만, 필자는 어둠 밖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리하게 자신을 옥죄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두운 면모도 나의 모습이고, 밝은 면모도 나의 모습이다. 누군가는 필자를 어두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밝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모습이 나 자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나의 모든 면모와 감정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기에 어둠 또한, 긍정하고, 어두운 시간을 그렇게 겪어낸다.</p> |
| <p>③ 인간의 어둠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p> | | |

| | | |
|-------------|-----|---|
| | 김*원 | 인간의 어둠이 누군가에게는 인식처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불행한 현실 속에서 심신이 지친 사람들에게 어둠은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둠이 인간에게 마냥 부정적인 영향만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당연히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어둠을 오히려 위안 삼기도 한다. |
| | 안*민 | 인간의 어둠은 인간에게 사유의 시간을 준다고 생각한다. 어둠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의 처절함과 간절함을 가질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둠이 있다면 당연히 빛이 있다는 전제를 두고 말하자면, 어둠은 삶에 대한 환희를 느끼게 해주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어둠이라는 대비가 있으니 말이다. 또한, 어둠을 비롯한 이중성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
| | 우*수 | 필자는 인간의 어둠이 부정적인 결말만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둠은 때로는 인간의 내면을 성장시켜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둠이, 아픔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두웠던 시간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고찰을 할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어둠은 죽음에 가까워지기 위한 유혹이었을 뿐,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각자의 어둠이 존재하기에 타인을 포용하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나보다 힘든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딘가 큰 위안을 얻게 된다. 나만 느끼는 특별한 아픔인 줄 알았던 것이 평범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안도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을 포용해주기도 하며, 위안을 얻기도 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어둠이 있기에 빛이 있다는 말처럼 어둠마저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이라면, 어둠을 빛으로 끌어내는 법을 알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3. 명문장 공유하기 | | |
| | 김*원 | p.122 "자신이 받고 있던 과분한 사랑, 오로지 사진에만 몰입하고 싶을 때조차 시간을 내어 달라고 요구하던 누군가가 사라졌다는 것에 오히려 위안을 받았다. 아 |

| | | |
|--|------------|--|
| | | <p>니, 그보다 장을 위안해준 것은 자신이 더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자책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이었다." 장은 아내와 이별한 후, 오히려 안정된 일상을 살아갔다. 보통의 사람들은 배우자와 이별을 하게 되면 슬픔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장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반대였다. 그렇다고 장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진을 향한 열망이 더 컸을 뿐이다. 그의 아내조차 막지 못했던 사진에 관한 장의 열정을 이 문장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장의 열망은 아내와 이별한 후에야 비로소 자유로워졌고, 그러므로 아내와의 이별은 예견되어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아내에게 장의 열망은 잔인하리만큼 냉혹한 현실과 같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문장이 아내와 장이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며, 끝내 돌의 틈을 좁힐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p> |
| | <p>안*민</p> | <p>p.55 "그는 어느 때보다 직접적인 죽음의 유혹을 느끼고 있었다. 약을 먹거나 가스를 틀어놓는 식의 방법을 택할 마음은 없었다. 만일 한다면 깨끗하게 뛰어내릴 생각이었다. 가장 확실하게, 준비과정도, 구조될 염려도 없이 몇 초면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몇 초면 끝난다는 바로 그 생각으로 그는 하루하루를 버텨갈 수 있었는지 모른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죽음의 유혹을 느낄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유혹이 직접 다가올 때도 있고 말이다. 그러나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우리는 죽음이 여전히 두렵고, 고통 또한 겪고 싶어하지 않는다. 죽을 때마다 고통 없이 죽기를 희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다. 우리의 삶은 죽음의 유혹과 꽤 가까운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듯 당돌하게 삶을 영위한다. 우리의 삶을 단 몇 초 만에 끝내는 것은 허무할 것이다. 죽음에 관한 유혹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당기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삶을 살아가게 하기도 한다. 삶이란 각각의 유혹들과 사투하는 연속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장보다 인간을 처절하게 꿰뚫어 보고, 인생의 전반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했기에 인상 깊었다.</p> |
| | <p>우*수</p> | <p>p.141 "명운은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따위의 말을 믿지 않았다. 단지 멀리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의 고통이나 병이나 죽음을 알아낼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p> |

| | | |
|--------------------------|------------|--|
| | | <p>리고 말 만큼 무력한 것이 사랑이었다. 지금 의선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상태인지 그가 전혀 알 수 없으며, 아무런 육체적 고통도 전하여지지 않듯이." 사랑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그것은 때론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일 수도 있지만, 명윤의 사랑의 형태는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인 명아를 진심으로 애정했지만, 명아는 그 애정을 거부했다. 명아의 거부에 멀어질 수 밖에 없었던 명윤이지만, 그는 오히려 명아와 멀어지고난 후에야 더욱 깊은 그리움을 느낀다. 그러나 필자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러한 모순적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모습은 현실에서 종종 나타나기도 하니까 말이다. 우리의 현실과 어딘가 너무 닮아있어서 모른 척하고 싶어졌던 문장이라 필자는 이 문장이 인상 깊었다.</p> |
| <p>4. 인상 깊었던 장면 공유하기</p> | | |
| | <p>김*원</p> | <p>장이 임과 함께 막장 속에 갇히게 되었던 장면이 인상 깊었다. 그 이유는 장의 새로운 면모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임이라는 인물의 서사도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장과 임이 막장 속에 갇혀서 나누었던 이야기와 시간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 장면이 나타나기 전에 필자는 장이 무뚝뚝하고 냉소적인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 장면 이후부터 장이 인간에게 진심을 담는 모습과 모든 현실적인 요소를 거를 정도로 열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임이라는 인물은 장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에서 인상 깊었다. 탄광 내부 사진을 찍고 싶어 했던 장을 모두가 만류했지만, 임만큼은 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장의 사진을 향한 열정을 알아준 것만으로 있음은 장에게 많은 의미를 가지는 인물이다. 그러나 함께 막장에 갇히게 되면서 더 큰 여운을 남기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장이 듣게 되었던 임의 인생은 앞으로의 장의 삶에도 큰 여운을 남기게 된다. 즉, 임은 장을 변화시킨 사람이자 그의 세계를 넓혀준 인물로서 인상 깊었다고 할 수 있다.</p> |
| | <p>안*민</p> | <p>장이 광부들과 함께 갱도 속으로 들어가 카메라로 탄광 내부를 찍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이 장면을 통해 보통의 사람들은 알 길이 없는, 땅 밑의 세계를 직접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은 광부들도 만</p> |

| | | |
|--|------------|---|
| | | <p>류했던 갱도 속을 찍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했다. 잠깐만 있어도 숨을 쉬기 어려운 갱도에 들어가겠다는 의지와 회차가 거듭될수록 적응은커녕 더욱 숨 가빠지는 막장에 들어가고자 했던 이유가 정녕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들었다.</p> |
| | <p>우*수</p> | <p>필자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의선이 큰 도로에서 옷가지를 벗어 던지던 장면이다. 그 이유는 밝은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소설에서 유일하게 밝음을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기 때문이다. 그 빛은 의선이 느꼈던 따가움만큼이나 강렬했다. 어둡고 음울한 현실에서 그 순간만큼은 벗어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장면을 통해 의선을 다시 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 의선을 이제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빛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p> |

2023년 10월 20일

참가자대표 : 김*원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3차)

| | | | | | | | |
|-------------------------------|--|---|----|-----|----|--|----|
| 북클럽 팀명 | 북 스트리트 (book street) | | | | | | |
| 운영일시 / 장소 | 일 시 : 2023년 10월 27일(금요일) / 장 소 :책방마실 | | | | | | |
| 참석자 명단 | 학번 | 2020**** | 이름 | 김*원 | 학번 | | 이름 |
| | 학번 | 2020**** | 이름 | 안*민 | 학번 | | 이름 |
| | 학번 | 2022**** | 이름 | 우*수 | 학번 | | 이름 |
| | 학번 | | 이름 | | | | |
|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진행 도서] 다자이 오사무-사양 | | | | | | |
| | 1. 줄거리 1분 요약하기 | | | | | | |
| | 김*원 | <p><사양>은 패전국 내에서의 가정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소설이다. 귀족 가문으로서의 부와 명예를 누리던 가정이 가장을 잃고, 점점 가족의 와해를 그려낸다. 그 가족을 책임지는 가즈코라는 여성은 자신을 희생해가며 아픈 어머니를 부양하지만, 어머니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 나오지만을 기다리며 점점 병세가 악화된다. 나오지의 귀환에 금방 생기가 불어나는 어머니를 보며 가즈코는 내심 섭섭해하지만, 어머니가 아프시기 전 자신이 태웠던 뱀의 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한다. 경제력이라는 현실에 부딪힌 어머니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병세의 악화로 세상을 뜬다. 자신의 신분이 부끄러웠던 나오지는 마약과 술에 전전공공하며 우에하라와 같은 문인들과 어울리다 그마저 세상을 떠난다. 홀로 남겨진 가즈코는 우에하라라는 예술가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다 그를 향한 마지막 편지로 <사양>은 끝이 난다. 패전 이후 일본의 몰락과 그 안의 귀족 사회의 몰락을 통해 그 당시 일본 시대의식을 느낄 수 있었으나, 한국인의 시점에서는 마냥 달갑지 않았다.</p> | | | | | |
| 안*민 | <p>갑작스레 맞닥뜨린 ‘패전’이라는 절망적 현실 앞에서 한 남매의 대조적인 태도가 극명히 드러난다. 남동생 나오지는 귀족이라는 태생에 좌절하고 문학에 조예가 깊어, 아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자신의 삶은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살한다. 작가인 다자이 오</p> | | | | | | |

| | | | | |
|------------|---|---|------------|---|
| | | <p>사무와 같은 죽음이다. 반면, 장녀로서 한 가정을 이끈 가즈코는 우에 하라라는 남자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도덕적 금기를 어기면서까지 저물어가는 태양을 다시 끌어올린다. 평소 다자이 오사무의 작품을 즐겨보기 때문에 <사양> 또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다. 그는 대부분 깊은 우울과 자조적인 분위기로 작품을 진행시키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시적인 문구들과 당찬 여주인공, 작가 본인처럼 투신한 나오 지와는 달리 계속 삶을 살아나가는 가즈코의 모습을 통해 희망찬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살아간다는 것의 피 튀기는 치열함과 죽는다는 것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었다.</p> | | |
| | <p>우*수</p> | <p>자신의 가문이 힘을 잃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죽음과 나오지의 죽음은 가즈코가 혁명을 일으키는 데에 각성제로 작용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미 늦었다’라는 답변을 듣고도 이제 시작이라는 당돌한 모습을 보이고, 우에하라에게 보낸 편지들에 아무 답장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밀어붙이며 마지막 편지에는 질문 형식이 아닌 마침표로 끝낸다. 자신과 우에하라 사이의 아이를 ‘사생아’로 표현하면서 자신과 아이의 관계를 성모 마리아와 그녀의 아들 관계처럼 갈무리 짓는다. 가즈코는 사랑을 위해 혁명가가 되어 자기 주도적인 삶을 구축하고 그로부터 스스로 상처를 극복해낸다. 가족이 와해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해도, 가즈코는 가즈코만의 행복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이 가슴 뛰게 만들었다.</p> | | |
| | | <p>2. 토의</p> <p>① <사양>이 발간된 후, 세간에서는 다자이 오사무의 페미니즘적 작품이라는 의견과 아니라는 의견으로 갈렸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간다. 과연 <사양>은 페미니즘적 작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가?</p> <table border="1" data-bbox="478 1568 1476 1971"> <tr> <td data-bbox="478 1568 750 1971"> <p>김*원</p> </td> <td data-bbox="750 1568 1476 1971"> <p>사양이 페미니즘적 소설로 소개되는 것은 다자이 오사무가 여성 주체를 주인공으로 설정했다는 것이 가장 먼저 작용했을 것이다. 패전 후, 가즈코의 어머니는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며 몰락하고, 그의 동생인 나오지는 자신을 견딜 수 없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며 몰락한다. 가즈코 또한 몰락한 계급, 그리고 이혼한 여성이라는 한계를 체험하면서 그녀 또한 무너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사랑을 ‘선택’한다. 그 대상이 유부남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을 한 번 더 놀라게</p> </td> </tr> </table> | <p>김*원</p> | <p>사양이 페미니즘적 소설로 소개되는 것은 다자이 오사무가 여성 주체를 주인공으로 설정했다는 것이 가장 먼저 작용했을 것이다. 패전 후, 가즈코의 어머니는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며 몰락하고, 그의 동생인 나오지는 자신을 견딜 수 없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며 몰락한다. 가즈코 또한 몰락한 계급, 그리고 이혼한 여성이라는 한계를 체험하면서 그녀 또한 무너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사랑을 ‘선택’한다. 그 대상이 유부남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을 한 번 더 놀라게</p> |
| <p>김*원</p> | <p>사양이 페미니즘적 소설로 소개되는 것은 다자이 오사무가 여성 주체를 주인공으로 설정했다는 것이 가장 먼저 작용했을 것이다. 패전 후, 가즈코의 어머니는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며 몰락하고, 그의 동생인 나오지는 자신을 견딜 수 없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며 몰락한다. 가즈코 또한 몰락한 계급, 그리고 이혼한 여성이라는 한계를 체험하면서 그녀 또한 무너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사랑을 ‘선택’한다. 그 대상이 유부남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을 한 번 더 놀라게</p> | | | |

| | | |
|--|------------|---|
| | | <p>만든다. 여기서 작가가 유부남을 그 대상으로 정한 것은 단순히 충격을 주기 위함 이 아닐 것이다. 사회에서 유부남을 사랑하는 것은 금기이다. 하지만 적어도 <사양>이라는 소설 속에서는 사랑을 '선택'했고 또다시 금기를 깨부수고 뛰어넘는 것을 '선택'한 가즈코가 매우 주체적인 여성으로 그려질 수 있다. 흠모했던 어머니를 따라 다시 고풍스러운 귀족이 되고자 노력하지도, 자기 자신을 포기한 나오지처럼 생을 마감하지도 않고, 가즈코는 그녀만의 새로운 '선택'을 끊임없이 해나간다. 텍스트가 쓰인 배경과 텍스트 내의 맥락을 살펴본다면 누구보다 주체적인 가즈코를 그려낸 <사양>은 다자이 오사무의 페미니즘적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p> |
| | <p>안*민</p> | <p>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홀로 병간호를 맡으며 동생 나오지의 뒷바라지를 하는 역할의 가즈코만 본다면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페미니즘적 작품으로 읽힐 수 있냐'며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가즈코의 표면적인 일상의 모습이 아닌, 우에하라씨와의 사랑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술에 취한 우에하라씨와 함께 걸으며 가즈코는 은연 중에 사랑을 고백한다. 이에 우에하라씨는 “하지만 이미 늦었어. 황혼이야.”라며 실망스런 답변을 남긴다. “아침이에요.” 가즈코는 짧게 대답한다. 이때, 황혼과 아침의 대비가 극명하게 일어난다.</p> <p>황혼: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 또는 그때의 어스름한 빛.</p> <p>우에하라씨는 그들의 사랑을 황혼, 즉 지고 있는 태양이라고 말했지만 가즈코는 아침,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반박한다. 저물어가는 해를 가즈코만의 사랑과 혁명을 통해 다시 떠오르게 만들어냈다는 점, 다자이 오사무가 본 텍스트의 주인공을 여성으로 설정했다는 점, 그 안에서 가즈코 스스로 희망의 기반을 만들며 주체적 여성성을 드러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사양>은 충분히 다자이 오사무의 페미니즘적 작품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p> |
| | <p>우*수</p> | <p>다자이 오사무라는 작가와 그 당시(전후) 일본의 여성상을 두고만 본다면 분명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즈코라는 인물의 '사랑혁명'만을 두고 여성의 주체성을 논하는 것은 비약이다. 마약과 알콜에 중독 되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악국에 수</p> |

십엔의 빚을 진 남동생 나오지를 위해 그녀는 매번 속는 셈 돈을 보내준다. 몸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시간조차 없이 그녀는 매번 발 일을 하고 어머니를 병간호 한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가즈코에게 여성의 주체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 우에 하라씨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주체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우에하라씨는 아내와 아이까지 가진 유부남이다. 이러한 사랑을 두고 가즈코의 용기에 박수를 쳐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우에하라와 가즈코의 잘못된 사랑 속에서 그의 아내와 아이가 고스란히 받는 상처는 또 다른 여성의 몰락이다. 가즈코 스스로 주체적인 사랑을 이뤄냈다는 점으로만 다자이 오사무의 <사양>을 페미니즘적 작품으로 보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인다.

② 나오지는 패전 후 귀족의 몰락으로 인해 자신의 소속에 대한 혼란을 겪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하지만 그는 가즈코를 위해 남긴 유서에 본인의 죽음은 '결국 자연사'라고 말한다. 과연 그의 죽음은 타살인가, 자살인가, 혹은 그의 말대로 자연사라고 할 수 있는가?

김*원

결과론적으로 접근한다면 나오지의 죽음은 결국 자살에 불과하다. 다자이 오사무는 이 작품을 통해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다. 가즈코와 나오지는 같은 배경 내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두 인물상이다. 자신의 한계 속에서도 혁명가(정치적 의미의 혁명과는 다르다.)의 길을 걸으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 가즈코와는 달리, 어머니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명목하에 나오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뒤를 따른다. 결국, 가즈코는 자신만의 혁명을 끝까지 밀고 나갔지만, 나오지는 스스로 행복의 기반을 다지지 못한 채 삶을 포기해버린 것이다. 또한 <사양> 내에서 나오지라는 인물은 작가 자신의 모습이 가장 많이 투영된 인물이다. 자신이 귀족임을 부끄러워 한 것, 끝까지 살아내지 못한 것, 등 작가의 생애와 굉장히 흡사하다. 나오지의 유서는 마치 작가의 유서를 보는 것만 같다. 즉, 작가는 <사양>의 나오지로써 당찬 캐릭터인 가즈코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작품을 써내려갔으리라 생각한다. 작가와 나오지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닮아있다는 점, 작가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점, 나오지는 가즈코처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지 못했다는 점, 모두를 통틀어 나오지의 죽음은 결국 자살 이

| | | |
|--|-----|---|
| | | <p>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p> <p>나오지는 왜 자신의 죽음을 자연사라고 표현했을까. 나오지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오직 가즈코에게 남긴 유서에서만 딱 한 번 언급한다. 심지어 그는 “부인 이외의 다른 여자 친구를 한 번도 아름답다거나 안쓰럽게 느낀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그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지를 보여준다. 그런데도 그는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사랑이라 생각하여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 책의 초반부에서 가즈코는 어머니와 대화하며 이렇게 말한다. “다른 생물들에게는 절대로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것. 그건 바로 비밀이라는 거죠.” 나오지는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비밀’마저도 모두 털어놓고, 단 하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몰락한 귀족이라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천박한 짓을 했음에도 귀족과 서민 사이 그 어느 곳에도 끼지 못하는 ‘이방인’이 되었다. “인간은 사랑과 혁명을 위해 태어난 것이다.” 나오지는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한 채, 그로서는 살아갈 이유가 모두 사라졌다는 점에서, 적어도 본 작품 내에서 그의 죽음은 자연사로 불려도 무방할 것이다.</p> |
| | 안*민 | <p>각각의 인물상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시간적 배경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그들을 멀리 지켜본다면 나오지의 죽음은 타살로 여겨질 수 있다. 작품의 시점은 패전 이후의 배경이라는 점에서 나오지라는 인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가즈코와 나오지 그리고 어머니, 세 명의 가족 구성원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 지 귀족이라는 신분 하에 굉장한 부와 명예를 누렸다고 암시되어 있다. 하지만 전쟁 후 일본 내에서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신분제이다. 전쟁 직후이기 때문에 갑자기 신분제가 폐지되거나 계급에 따른 명칭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나, 이미 서민들 사이에서는 허울 좋은 이름만 가진 그저 별 볼 일 없는 똑같은 인간으로 치부되어 왔다. 자신이 귀족이라는 것에 나오지는 엄청난 자기 혐오를 느꼈고, 이는 그의 유서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 나는 다만 귀족이라는 자신의 그림자를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치며 놀았고 황폐해졌습니다… 귀족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의 죄일까요?” 독자들은 이 문장을 통해 나오지가 귀족이라는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엿 볼</p> |
| | 우*수 | |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다. “민중에게 나는 여전히 아니꼽게 썩 척하는 갑갑한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나하고 진심을 터놓고 놀아 주지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이도 저도 소속될 수 없는 경계선에 놓인 것이다. 본인의 태생에 대한 의문까지 품게 된 그는 결국 아무 곳에도 소속되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워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디에라도 소속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오지의 죽음에 대한 초점을 과정에 두고 본다면 그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로 여겨질 수 있다. 그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단정 짓는다면 결국 우리는 죽은 자를 탓하게 되는 것 아닐까.

③ <사양>이란 저녁때의 햇빛. 또는 저녁때의 저무는 해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책의 제목의 의미인 ‘저무는 해’는 이 작품 내에서 무엇을 시사한다고 생각하는가?

김*원

다자이 오사무, 작가 자신의 저물어가는 인생이 투영된 제목이라고 생각된다. 그가 서른아홉이라는 젊은 나이로 생일 마감하기 1년 전, <사양>이 집필되었다. “<사양>은 작가 자신의 분신이기도 한 이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발이라 하는 빛과 그림자가 한데 어우러져 묘한 조화를 이루어 낸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만의 색깔과 목소리를 지니고 개성 있게 연주되는 ‘마지막 4중주’” (다자이 오사무, 1966, 사양, 작품해설, 민음사) 사양에 등장하는 주된 4명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다자이 오사무 자신의 시기별 모습이 투영되어있다는 해석이다.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고 집필된 <사양>은 다자이의 전기 모습, 후기 모습, 그가 바랐던 이상향의 모습, 사랑했던 여인의 모습이 모두 등장하며 작가의 일대기인 것처럼 보인다. <사양>의 가즈코처럼 행복의 기반을 다지지 못했던 작가는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였고, 이는 그의 마지막 ‘사양’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안*민

다시 떠오르는 해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 저무는 해는 영원히 저물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다른 해가 떠오르기 마련이다. 기울어져, 저물어가는 귀족들의 상징이었던 가즈코와 나오지, 그리고 어머니는 ‘사양’의 대명사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주인공인 가즈코만은 그들과 구별된다. 가즈코는 어머니에 대한 기술마다, 본인은 차 마 따라할 수조차 없는 고귀한 귀족의 모습

| | | |
|--------------------|------------|---|
| | | <p>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순수함과 이상적인 귀족의 모습이 작품 내에서 이뤄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나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스러져 갔다. 완벽한 순수함과 이성의 불가능을 보여준다. 나오지 또한 현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자기 혐오에 갇혀 죽음을 맞이한다. 오로지 가즈코만이 현실을 딛고, 자신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다. 가즈코는 우에하라씨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만, 자신의 아이와 본인의 관계를 '사생아'라고 정의한다. 우에하라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우에하라와 아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과거의 연속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외친다. 작품 내에서 모두가 저물어가는 태양이었지만, 가즈코만은 '전투, 개시'를 통해 혁명을 이뤄내며 새로운 태양을 떠오르게 만든다.</p> |
| | <p>우*수</p> | <p>“꿈. 모두, 내게서 멀어져 간다.” 책의 마지막 장, 첫 번째 문장이다. “... 우리 어머니도 그런 진짜 귀부인의 마지막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다.” 전쟁이 끝나고 최후의 귀부인 과도 같았던 가즈코의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고풍스러운 귀족의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경제력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 그녀의 동생 나오지 또한 본인이 귀족이었다는 우월감과 좌절감 사이를 방황하다 세상을 떠나가고, 마지막으로 우에하라 씨에게 썼던 편지는 전해졌는지, 전해지지 못했는지, 답장을 받았는지에 대한 일언반구 언급 없이 <사양>은 막을 내린다. 가즈코의 삶 일부분을 차지했던 모두가, '멀어져 간다. '그녀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귀족의 몰락을 그린다. <사양>은 당시 일본에서 '사양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행사했다. 그만큼 당시의 몰락해가던 귀족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저무는 해'는 작가 자신의 삶이기도 한, 패전 직후 귀족들의 몰락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p> |
| <p>3. 명문장 공유하기</p> | | |
| | <p>김*원</p> | <p>혁명을 동경한 적도 없고 사랑조차 알지 못했다. 지금까지 세상의 어른들은 혁명과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장 어리석고 껄름칙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다. 전쟁 전에도 전쟁 중에도 우리는 그런 줄로만 믿었으나, 패전 후 우리는 세상의 어른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무엇이건 그들이 말하는 것과 반대쪽에 진정한 살길이</p> |

| | | |
|--|------------|---|
| | | <p>있는 것 같았고, 혁명도 사랑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달콤한 일이며, 너무 좋은 것이나 보니 심술긋은 어른들이 우리에게 포도가 시다며 거짓을 가르친 게 틀림없다고 여기게 되었다. 나는 확신하련다. 인간은 사랑과 혁명을 위해 태어난 것이다. (109)</p> <p>“‘사랑’이라 썼다가, 그다음은 쓰지 못했다.” (30) 사랑의 뒷부분을 써 내려가지 못한 가스코가 인간의 본질을 사랑과 혁명으로 정의하며 성장한 모습이 너무나도 와닿았다. 왜인지 모르게 빠른 속도감으로 읽히는 가스코의 독 백은 마지막 문장으로 정점을 찍으며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주변에 존재하는 사랑에 대해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p> |
| | <p>안*민</p> | <p>날이 밝았습니다. 오래도록 고생만 끼쳤습니다. 안녕. 간밤의 취기는 말끔히 가셨습니다. 나는 맨정신으로 죽습니다. 한 번 더, 안녕. 누나. 나는 귀족입니다. (160)</p> <p>자신이 귀족이라는 사실에 평생을 고통받아왔던 나오지가, 유서의 가장 마지막 문장을 “나는 귀족입니다.”로 마친다. 죽음 앞에서 나오지는 그때까지 해오던 모든 자기부정을 저 한 마디를 통해 자기 긍정으로 돌린다. 자기 자신마저도 타인으로 취급했던 나오지는 귀족임을 인정하고 그동안 부정해온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점이, 게다가 “맨정신으로 죽는다”라는 점이 그가 얼마나 아름답게 죽어가는지 종지부를 찍어준다. 죽음 앞에서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다.</p> |
| | <p>우*수</p> | <p>행복감이란 비애의 강바닥에 가라앉아 희미하게 반짝이는 사금 같은 것이 아닐까? 슬픔의 극한을 지나 아스라이 신기한 불빛을 보는 기분. (118)</p> <p>자그마한 행복 뒤에 쫓아오는 불행에 대해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순간, 불행이 뒤따라올까 봐 두렵다.’라는 감정을 종종 느낀 적이 많았기에 ‘행복’에 대해 언급하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행복과 불행 사이의 관계에 대한 <사양>의 표현은 더 그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게 해준다. 아스라이 신기한, 그 불빛을 보기 위해 또다시 비애의 강바닥을 헤집어놓고 싶어졌다.</p> |

4. 인상 깊었던 장면 공유하기

| | |
|------------|---|
| <p>김*원</p> | <p>어머니가 죽어가던 장면이 가장 인상 깊다. 가즈코의 어머니가 눈을 감기 3시간 전까지도 서로는 많은 대화를 나눈다. 이제서야 세상 물정을 알 것 같다는 가즈코의 말에 어머니는 “난 모르겠어. 아는 사람이 있으려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모두 어린애야.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가즈코는 풀 죽지 않는다. ‘아직 어린 애라고 하더라도 살아가야만 하고, 이제부터 세상과 싸워나가야’하는,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 그녀의 혁명의 시작 불씨가 이 장면을 통해 피워졌다고 생각한다.</p> |
| <p>안*민</p> | <p>가즈코의 ‘전투, 개시’ 장면. 가즈코의 전투 장면은 총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의 “전투, 개시. 언제까지나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 장면은 자신이 혁명가로서의 결의를 다지는 장면이다. 두 번째의 “전투, 개시… 연 애를 위해, 그 슬픔을 위해, 몸과 영혼을 나락으로 내던질 수 있는 사람. 아아, 나는 나 자신이야 말로 그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전투 개시 장면은 가즈코가 혁명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다짐을 약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투, 개시. 사랑해, 좋아해, 그리워, 진짜 사랑해, 진짜 좋아해, 진짜 그리워. 보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리우니까 어쩔 수 없어.” 마지막 전투에서 가즈코는 맹공격을 쏟아 붓는다. 우 에하라를 향한 숨길 수 없는 그녀의 마음이 물밀듯 터져나온다. 마치 서론, 본론, 결론을 지닌 것만 같은 세 번의 전투 장면을 통해 누구도 부서트릴 수 없는 가즈코의 단단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듯 했다.</p> |
| <p>우*수</p> | <p>우에하라가 있는 술자리에 함께하게 된 가즈코는 흥청망청 살아가는 문인들을 보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하는 사랑의 경우처럼 그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다고 다시 생각을 고쳐먹는다. 이 장면에서 가즈코는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살기를 위한 이런 모습도 미워할 수 없는 게 아닌 거.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아아, 이 얼마나 버겁고 아슬아슬 숨이 넘어가는 대사업인가!” 지금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항상 목적이 존재해야 한다고만 생각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이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p> |

| | | |
|--|--|--|
| | | 것 아닌가? 수없이 많은 목적만을 보고 달려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지금의 우리는 가즈코의 말처럼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벅찬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다시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장면 중 하나인 것 같다. |
|--|--|--|

2023년 10월 27일

참가자대표 : 김*원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4차)

| | | | | | | | | |
|-------------------------------|---|--|----|-----|----|--|----|--|
| 북클럽 팀명 | 북 스트리트 (book street) | | | | | | | |
| 운영일시 / 장소 | 일 시 : 2023년 11월 3일(금요일) / 장 소 :책방마실 | | | | | | | |
| 참석자 명단 | 학번 | 2020**** | 이름 | 김*원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20**** | 이름 | 안*민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22**** | 이름 | 우*수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 이름 | | | | | |
|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진행 도서] 헤르만 헤세-수레바퀴 아래서 | | | | | | | |
| | 1. 줄거리 1분 요약하기 | | | | | | | |
| | 김*원 | <p>수레바퀴 아래서는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헤르만 헤세 그 자신을 투영시키고 있는 인물인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가 등장한다. 그는 어릴 적부터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 동네 사람들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다. 한스의 아버지도 바랬듯이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나 신학교는 그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장소가 된다. 신학교에는 자신보다 재능이 넘쳐나는 인물들이 많았고, 그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의 곁을 떠나고 만다. 그러므로 한스는 극심한 우울감을 느끼고 신학교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돌아온 고향에서는 이전과 달리 한스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끝내 삶에 대한 고통을 견디지 못한 한스 기벤라트는 생을 마감하게 된다. 현실적이고 암울한 결말에 필자는 책을 읽고 나서 한동안 먹먹한 심정이었다. 필자에게도 사춘기가 존재했기에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 것 같았고, 그 시절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스에게는 그러한 기회와 도움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p> | | | | | | |
| 안*민 | <p>이 작품은 한스 기벤라트라는 어린 소년이 사회의 굴레에 대해 대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작품 속 주인공인 한스는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 대항하지는 못 했지만, 현실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자신을 억누르는 가정과 종교로부터 대응하려고 했고, 결국,</p> | | | | | | | |

| | | |
|--|------------|---|
| | | <p>그는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지만 말이다. 이 작품은 이렇게 이원론적인 대립 구도 속에서 주인공의 내면을 비추고 있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유로 인해 등 떠밀려 신학교에 입학하여 그가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모든 사태와 감정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읽고 난 후, 필자는 필자의 학창시절을 떠올려보게 되었다. 필자 또한,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 규율에 숨이 막혔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방황하고 있던 나를 지탱해줄 사람이 있었는지도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한스와 달리 필자는 그런 시간을 겪어 내고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필자가 한스 기벤라트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더 존재했던 것이 아닐까. 더불어 앞으로 한스와 같은 시간을 겪게 될 학생들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스와 같은 결말만은 맞이하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p> |
| | <p>우*수</p> | <p>간단히 이 작품의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사회의 규율과 권위에 맞선 어린 소년의 저항을 통해 거대한 수레바퀴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다. 즉, 현대의 교육 체제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에서 학생이었다면 누구나 겪었을 압박감을 소재로 이야기하며, 기성세대에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스 기벤라트라는 주인공은 헤르만 헤세 자신을 투영시킨 인물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젊은 학생들을 대변해주는 역할이기도 한 것이다. 이 작품을 읽고 나서 필자는 어딘가 통쾌한 기분이 들었다. 모두가 느끼고 있지만, 함부로 말을 꺼낼 수 없었던 소재를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가 꼬집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학생들을 잃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책이 현실을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영혼이 다치고, 개인의 행복이 짓밟히는 상황에서도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에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젊은이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다.</p> |
| <p>2. 토의</p> <p>① 한스 기벤라트가 처한 상황과 한국의 교육 환경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p> | | |
| | <p>김*원</p> | <p>필자는 한스 기벤라트가 처한 상황과 한국의 교육 환경이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기숙 학교에 다니며, 보통의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공부량을 가지는 학생들의 삶과 한스 기벤라트의 삶은 더욱 닮아있다.</p> |

| | | |
|--|------------|--|
| | | <p>그들이 곧 한스 기벤라트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말이다. 한국의 교육 환경에 한스 기벤라트를 투영해보면, 그들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주입식 교육에 지칠대로 지쳤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부족함을 사교육으로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는 학생들 말이다. 사회의 압박감 속에서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사실상 말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무척이나 꺼린다. 그 이유는 오로지 주입식으로 만들어진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잘해도 발표나 토론을 꺼리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학생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자라난 학생들은 또다시 거대한 수레바퀴에 끼어 맞춰진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벌에 맞춰 취업 준비를 할 것이고, 최대한 개인성을 죽인 채 살아갈 것이다. 한국에서 요구하는 삶은 개인성이 필요하기보다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서서히 국가의 규율을 받아들이게 된다. 개인의 의지보다는 사회에서 고평가하는 직업을 선택하기를 희망하고, 사회의 큰 굴레에 각각 알맞은 부품이 되길 희망한다. 한스 기벤라트 또한, 수레바퀴 아래에서 그 굴레에 맞는 부품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사회의 형태가 닮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교육 환경 속에서 새로운 한스 기벤라트가 탄생하는 것이다.</p> |
| | <p>안*민</p> | <p>한스 기벤라트가 처한 상황과 한국의 교육 환경은 처절하리만큼 닮아있다. 작품 속 주인공인 한스 기벤라트는 여러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생을 마감하고 만다. 이런 결말은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이다. 거의 매해 수능이 끝난 후, 자살을 한 학생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올라왔던 것을 떠올릴 수 있다. 그만큼 한스 기벤라트와 한국의 학생들이 느꼈던 압박감은 비슷했을 것이다. 그들이 생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 이유는 사회의 탓일 것이고, 그 형태가 닮아있음을 알 수 있다. 한스 기벤라트와 한국의 학생들 모두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관한 압박을 받아왔을 테이고,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큰 좌절감으로 이어졌으리라. 가정, 학교, 종교, 국가 등 모든 범주에서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과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은 늘 어느 정도 차이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큰 틀에서 사회는 그런 개인의 슬픔 따위는 존중해주지 않</p> |

| | | |
|---|------------|---|
| | | <p>는다. 그리고 유약한 학생들은 결국 삶을 놓아버리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모든 환경이 한스 기벤라트를 비롯해 한국의 학생들을 떠올리게 만든다.</p> |
| | <p>우*수</p> | <p>한스 기벤라트가 처한 상황과 한국의 교육 환경은 매우 닮아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율 속에 포함된 모든 학생은 전부 같은 마음이라.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학벌주의가 존재한다. 동시에 한스 기벤라트도 학벌주의에 영향을 받은 인물 중 하나이다. 이러한 학벌주의로 인해 밤새 줄서서 사교육을 듣는 학생들을 목격할 수 있다. 그들을 바라보는 타인들은 안타깝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학생들에게 학벌이란 그들의 전부이자 세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세계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모습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면, 수레바퀴 아래에 깔리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처럼 보일 것이다. 이러한 삶이 반복된다 보면, 한스 기벤라트와 한국의 학생들은 하늘이 원체 파랗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다. 수레바퀴 아래에서 하늘을 볼 여유조차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p> |
| <p>② 한스 기벤라트가 수레바퀴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p> | | |
| | <p>김*원</p> | <p>한스 기벤라트가 수레바퀴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회적 시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시선이 이렇게까지 따갑지 않았더라면, 한스 기벤라트는 극단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본인이 힘들다고 느끼면, 그 일을 그만두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는 중간에 공부를 그만두는 것을 우호적으로 바라봐주지 않았고, 그의 고통을 공감해주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를 채찍질할 뿐이었다. 그러면서 한스 기벤라트는 더욱 굽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공부를 그만두기만을 희망했지만, 그것은 더욱 부정적인 감정으로 커져갔다. 결국, 그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마저 상실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사회적 시선에 걸맞게 수레바퀴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한스 기벤라트가 끝내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스 기벤라트가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죽기 전까지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p> |

| | | |
|---|---|---|
| | <p>안*민</p> | <p>한스가 수레바퀴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스의 삶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을 읽다 보면, 한스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타인에 의존적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그가 방황하는 시기에 걸쳐있는 어린 소년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는 사는 동안 모든 선택을 타인에 의존해서 결정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평생 타인에게 등 떠밀려 선택하거나 타인의 관점에 맞춰서 자신을 끼워 맞춰왔다. 한스가 수레바퀴 아래서 살아가는 것 또한,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에 한스 기벤라트는 수레바퀴 아래에서 살아야 했지만 말이다.</p> |
| <p>우*수</p> | <p>한스 기벤라트가 수레바퀴 아래서 살아야만 했던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크기가 수레바퀴 아래에서 볼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신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가 버리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스 기벤라트는 어른들의 욕망을 채워주거나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지 못하면 그를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왔다. 그러므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삶의 의미마저 상실해버리는 것이다.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어린 소년인 한스 기벤라트가 볼 수 있는 세상은 이에 그쳤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스 기벤라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늘이 파랗다는 사실도 잊은 채 살아가게 된 것이다. 한스에게 자유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p> | |
| <p>③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p> | | |
| <p>김*원</p> | <p>수레바퀴 아래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누군가가 수레바퀴로부터 자신을 꺼내주겠다고 제안해도 본인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간혹 자신이 수레바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 삶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편안함에 익숙해지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알아도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히 수레바퀴 아래에서 머무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결말을 내리고 싶지 않다면, 현실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더 나아지기 위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목표한 바에 한 발짝이라도 가까워지기</p> | |

| | | |
|--------------------|------------|---|
| | | <p>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수레바퀴의 무게는 100년이 지나도 15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p> |
| | <p>안*민</p> | <p>수레바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대한 흐름에 대응할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음 같아서는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우리를 그 반대편에 내몰리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 내몰린다고 하여도, 그것에 전부 수긍하고 수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옥죄이는 규율을 벗어나기 위해 힘을 길러야 한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확고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대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고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작은 노력인 나의 의견을 확고히 하는 것부터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p> |
| | <p>우*수</p> | <p>수레바퀴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내가 수레바퀴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스 기벤라트의 삶을 빗대어 보면, 그는 자신이 수레바퀴 아래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수레바퀴 아래에 깔린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채찍질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언제까지나 반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 우리는 이 거대한 굴레에서 빠져나갈 각오를 해야 한다. 거대한 굴레에 부품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대체 불가능한 부품이라도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각오와 동시에 행동에 옮긴다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수레바퀴 아래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p> |
| <p>3. 명문장 공유하기</p> | | |
| | <p>김*원</p> | <p>P.53 "그는 반드시 동급생들을 앞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대체 왜 그래야 할까? 그 이유는 한스 자신도 알지 못했다."라는 문장이 인상 깊었다. 그 이유는 한스가 처해있던 상황과 그의 내면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짧은 문장만으로 그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스와 비슷한 처지에</p> |

| | | |
|--|------------|--|
| | | <p>놓여있는 학생들도 한스와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모두가 그렇듯이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일상이 반복될수록 공부의 근원을 잃어갔을 것이다. 익숙해졌고, 모두가 지시하기에 동급생들을 앞지르는 것에 혈안이 되어있었지만, 그는 점차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반복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그렇기에 삶의 이유도 점점 잃어갔을 것이다. 이 감정을 느꼈을 때 한스는 그를 옥죄이는 것들을 그만두었어야 했다. 그랬다면 자신의 삶까지 놓아버리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문장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저 문장이 등장한 순간으로 찾아가서 그를 대신 말리고 안아주고 싶기 때문이다. 한스를 비롯해서 이와 같은 상황에 부닥쳐있는 모든 학생까지 포함해서 말이다.</p> |
| | <p>안*민</p> | <p>P.104 "모두 한스가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너무 말랐고 너무 창백하다면서 신학교 음식이 그렇게 형편없느냐고 물었다. 한스는 아니라고 열심히 부인하면서 잘 지내고 있으며 다만 머리가 자주 아플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목사는 젊었을 때 자신도 두통에 시달렸다면 그를 위로했다.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문장이 인상 깊었다. 이 문장을 통해 한스의 내면이 풀아가게 만드는 원인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문장처럼 한스의 문제해결은 타인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본인이 힘듦을 느끼는 것과는 무관하게 타인의 관점에 따라 본인을 끼어 맞추었다. 그런 삶이 반복되면, 그 끝은 풀아있던 것이 터지고 말 것이다. 한스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못했으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갇아 먹고 있었다. 그러므로 필자는 그가 삶을 살아갈 때 자신만의 방식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p> |
| | <p>우*수</p> | <p>P.141 "무지막지하게 몰아댄 망아지는 길에 쓰러져 이제 쓸모가 없어진 것이다."라는 문장이 인상 깊었다. 한스는 자신보다 타인을 만족하게 해주기 위해 살아왔다고도 할 수 있다.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의 의지를 상실한 채 모두의 기대에만 충족시키기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들은 그런 한스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들은 한스가 더이상 도움이 되지 않자 가차없이 내던진다. 원래부터 한스가 그들에게 아무 상관도 없었다는듯이 말이다. 그는 더이상 그들이 원하는 정도의 지식을 담아줄 그릇도 되지 못하고, 병든 제자일 뿐</p> |

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서 필자는 마음이 사무치게 아팠다. 한 사람의 인격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한스를 보듬아주지는 못하고, 필요가 없어지자 유약한 학생을 내치는 게 정녕 한스를 위했던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싶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에게 한스를 떠나 모든 인간을 쓸모와 용도로만 구별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4. 인상 깊었던 장면 공유하기

| | |
|------------|--|
| <p>김*원</p> | <p>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 한스가 차가운 몸이 되어 소리 없이 천천히 어두운 강물을 따라 골짜기로 흘러가고 있는 장면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작품을 읽는 내내 그가 이미 부정적인 감정들을 겪어내지 못할 정도로 지쳐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걱정이 됐다. 그러나 끝내 생을 마감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자연을 동경하던 소년이 자연의 일부가 된 것임을 알았을 때 그 슬픔은 예상보다 크게 다가왔다. 그가 자연의 곁으로 가기 전까지 그를 지탱해줄 사람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안타까웠다. 한스에게 하늘은 원래 파랗다고 대신 알려주고 싶었다. 사회는 일등만을 기억할지 몰라도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었다.</p> |
| <p>안*민</p> | <p>필자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한스 기벤라트가 신학교를 관두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장면이다. 원하던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온 한스 기벤라트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어른들의 모습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한스 기벤라트 뒤에 서 있던 어른들의 명예욕을 여과 없이 알 수 있다. 한스라는 어린소년을 앞에 내세우고 그 뒤에서는 자신들의 욕망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나 한스가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자 냉혹하게 변해버린 모습을 보인다. 때서운 현실에 한스 기벤라트가 느꼈을 감정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p> |
| <p>우*수</p> | <p>구둑방 아저씨인 플라이크가 한스의 장례식에 조문을 온 선생님들을 향해 말하던 장면이 인상 깊었다. 그는 "저 사람들도 한스를 이 지경에 빠지도록 도와준 셈이지요."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당신이나 나, 우리 모두 저 아이에게 소홀했던 점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라고 덧붙이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그의 말이 사실이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애석하게</p> |

| | |
|--|---|
| | <p>도 한스가 깊은 고통에 빠지도록 밀어 넣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을 끝내 깨달았든 아니든 한스는 이미 죽은 목숨이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냉혹한 현실에 애도를 표하게 만든다. 그가 자신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선생님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 결말은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에게 아쉬움을 남겨주기도 하며, 먹먹한 슬픔을 남겨주는 장면이었다.</p> |
|--|---|

2023년 11월 3일

참가자대표 : 김*원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5차)

| | | | | | | | | |
|-------------------------------|--|---|----|-----|----|--|----|--|
| 북클럽 팀명 | 북 스트리트 (book street) | | | | | | | |
| 운영일시 / 장소 | 일 시 : 2023년 11월 10일(금요일) / 장 소 : 책방마실 | | | | | | | |
| 참석자 명단 | 학번 | 2020**** | 이름 | 김*원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20**** | 이름 | 안*민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22**** | 이름 | 우*수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 이름 | | | | | |
|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진행도서] 외젠 이오네스코 - 코뿔소 | | | | | | | |
| | 1. 줄거리 1분 요약하기 | | | | | | | |
| | 김*원 | <p>외젠 이오네스코의 <코뿔소>는 총 3막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희곡이다. 난데없는 코뿔소의 등장과 그 등장에 관한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보인다. 2막에서는 코뿔소를 직접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코뿔소의 등장을 부정하는 전형적인 보수주의 보타르의 등장으로 시작하여, 인간들이 점점 코뿔소로 변해가는 장면을 그린다. 결국 모든 인간들이 코뿔소로 변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 책의 주인공 베랑제라는 인물은 인간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코뿔소로 변할 것인지 사이에서 고민하며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모두가 코뿔소로 변해버린 사회에서 홀로 남은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코뿔소>를 읽으면서 과연 내 자신이 베랑제라면 그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혹은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인간의 실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p> | | | | | | |
| 안*민 | <p>작가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겪었던 나치즘과 같은 파시즘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풍자소설이다.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코뿔소로 변해가면서 이야기되는 주변 인물들의 제각기 다른 반응이나 그들의 정신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누군가는 코뿔소의 종자를 구분하고, 누군가는 뿔의 개수를 세는 등 코뿔소의 등장은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을 이끌어 낸다. '코뿔소 바이러스'가 개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코뿔소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유일한 인물인 베랑제는 유일한 인간으로</p> | | | | | | | |

| | | |
|--|------------|---|
| | | <p>남을 것인지 혹은 자신도 코뿔소가 될 것인지 한참을 고뇌한다. ‘코뿔소’라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집단의 광기를 이끌어내고 ‘나’라는 개인이 그러한 이데올로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켜내는 베랑제라는 인물을 통해 마냥 비극적인 작품으로만 읽히지는 않았다. 텍스트만으로도 충분히 생생함을 느낄 수 있었지만, 실제 연극을 통해 <코뿔소>를 만나보고 싶게 되었다.</p> |
| | <p>우*수</p> | <p>17명의 등장인물들과 한 명의 인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코뿔소로 변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줄거리라고도 할 수 있는 희곡이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인간으로 남았던 베랑제의 존재를 통해 1막부터 3막까지 진화하고 변화하는 인간상을 찾아볼 수 있다. 1막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코뿔소에 대해 장, 논리학자, 노신사, 데이지, 주부 등등 많은 인물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지만, 베랑제는 이에 반응할 힘조차 없이 그저 모든 게 귀찮고 피곤할 뿐이다. 하지만 2막에서 점점 코뿔소로 변해가는 사람들을 보며 두려움을 느끼고 집 안으로 숨어드는 소심한 인간으로 변한다. 3막에서의 베랑제는 아닌 것에는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집단을 넘어서는 개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인간으로 책은 끝이 난다. 나는 <코뿔소>를 읽으면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 생각났다. <변신>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가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다. 완전히 반대의 내용이지만 거대한 집단과 개인의 대립이라는 공통적인 구도는 ‘나’라는 개인이 어느 편에 서게 될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p> |
| <p>2. 토의</p> <p>① 인간들이 코뿔소로 변하게 되면서 ‘어떻게, 어째서, 왜’ 변하게 되는지, 그리고 코뿔소로 변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작가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 느닷없는 ‘코뿔소 바이러스’를 발생시킨 주체와 목적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p> | | |
| | <p>김*원</p> | <p>군중심리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처음 코뿔소의 등장은 마을 사람들을 당황시킨다. 평화롭기만 했던 마을에 한 마리의 코뿔소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처음에 사람들은 코뿔소의 등장을 매우 이상하게 여기지만, 하나 둘씩 코뿔소로 변해감에 따라 오히려 코뿔소가 되지 못</p> |

| | | |
|---|------------|---|
| | | <p>하는 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한다. 코뿔소가 되는 이상한 현상을 제대로 파헤쳐보거나 고치려고 는 하지 않은 채, 너도나도 코뿔소가 되기를 자처한다는 점에서 작가는 군중심리의 전염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생각했다.</p> |
| | <p>안*민</p> | <p>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전부 허상과 믿음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라는 개념도, 돈이라는 개념도, 인간의 잘잘못을 가리는 법적 기준이라는 것도, 전부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도덕이라는 것도 인간들끼리의 합의 하에 만들어낸 또 다른 허상일 뿐이다. 코뿔소로 왜 변해 가는지도 모른 채 코뿔소로 변한 인간들이 더 많은 이유로 ‘코뿔소가 옳은 것 같다’며 인간이길 거부한다. 그들을 코뿔소로 만든 것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코뿔소가 진실이라는 허구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작가가 ‘코뿔소 바이러스’의 원인과 목적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어느 편에 서든지 결국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도했다고 생각한다.</p> |
| | <p>우*수</p> | <p>코뿔소 바이러스의 원인에 대한 주체가 없다는 것은 이 책의 제목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부연설명도 없이 작가는 책의 제목을 <코뿔소>라는 한 단어로만 지었다. 독자들은 <코뿔소> 그 자체로의 주체와 객체가 무엇인지 모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목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는, 몸집이 크고 코에 뿔이 달린 동물이라는 정보뿐이다. 작가는 제목 <코뿔소>에 관해 언급하면서 코뿔소라는 동물은 공격적이고 복종적인 성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작품 내에서 그 코뿔소들은 과연 누구에게 복종하는가? 결국 독자들이 <코뿔소>를 보고 주체와 객체의 혼동을 겪듯이, 코뿔소 바이러스의 주체상실은 인간과 코뿔소 사이에서 혼동하던 인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주된 주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기력하게 방관하고 참여하는 태도를 지적하기 위함이다.</p> |
| <p>② 주인공 배랑제는 결국 인간으로 남는 것을 선택한 채, 모두가 코뿔소가 된 상황에서 단 하나의 인간으로 막을 내린다. 본인이 배랑제의 입장에 선다면, 코뿔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p> | | |
| | <p>김*원</p> | <p>이상적인 답변을 내놓으려고 한다면, 끝까지 인간으로 남는 것을 선택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하나둘</p> |

| | | |
|--|------------|--|
| | | <p>씩 코뿔소로 변해가는 그 광장에서 나 홀로 인간으로 서있다면 어떨까. 베랑제가 사랑했던 데이지라는 여성은 마지막까지 그와 함께 인간으로 남아있었다. “가연은 사람! 나도 당신과 함께 끝까지 저항하겠어요.”라고 말했던 데이지는 결국 “베랑제, 질투하지 마세요. 날 용서해 줘요.”라는 말을 남긴 채 결국 코뿔소의 집단으로 들어간다. 서로 사랑하던 사람마저 나를 남겨두고 코뿔소의 무리로 들어간다면 정말 끝까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만약 코뿔소가 되지 않았을 때 사실 당할 것이라는 선포가 내려지면, 그럼에도 코뿔소가 되기를 거절할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p> |
| | <p>안*민</p> | <p>인간으로 남고 싶다. 처음 코뿔소로 변한 사람은 뵈프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직장인으로, 그가 처음 코뿔소로 변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책의 후반부와는 사뭇 달랐다. 뵈프는 원래 곁돌던 인간이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던 개인으로 치부되며 그에게 처음 발현된 코뿔소 병은 단순한 사회부적응자의 일탈 정도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점점 호기심, 궁금증 때문에 코뿔소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결국 다수가 되어버린 코뿔소 집단을 보며 사람들은 자신이 소수가 되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코뿔소를 택한다. 개인의 성향으로 치부되었던 코뿔소 병이, 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코뿔소 집단은 얼마나 얇은가? 만약 몇몇의 코뿔소가 인간으로 다시 인간으로 변하고 수가 많아진다면 그들은 분명 다시 인간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에게 휩쓸려 나까지 코뿔소가 되는 일만큼은 막고 싶다. 베랑제처럼 최후의 인간이 되더라도 인간을 선택하고 싶다.</p> |
| | <p>우*수</p> | <p>작가는 왜 코뿔소가 되는지, 코뿔소 병이 전염되는 이유를 모른 채 변해가는 인간들을 풍자한다. 하지만 한 개인의 위대한 저항을 보여준다. 그는 우정과 사랑을 모두 잃었음에도 저항한다. 처음에는 코뿔소의 힘에, 그 다음에는 코뿔소의 아름다움이라는 환각을 보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베랑제는 코뿔소를 보며 “끔찍하다”라고 한다. 홀로 남았기에 소통의 단절, 외로움 등을 느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기를 선택한 베랑제를 보며 많은 울림을 느꼈다.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때 “아니다”라고, 모두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길 바라며, 나는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겠다.</p> |

③ 급속히 전염되어 가는 코뿔소 병에 대한 지식인들의 태도는 굉장히 회피적이다. 코뿔소 전염병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코뿔소인지, 뿔은 몇 개인지 등 도움 되지도 않는 현학적인 질문들만 늘어놓는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태도이다. 특정 주제에 대해 어느 입장에도 서지 않고 중립만을 고수하는 것은 어떠한 이점과 허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 | |
|-----|---|
| 김*원 | 중립을 고수한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똑똑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토론의 주제가 예민할수록 중립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많아진다. 애초에 토론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중립의 입장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하며, 더 이상 발전시키기가 어렵다. 이제는 ‘불편함’을 피하고자 중립을 선언하기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
| 안*민 | 작품 내에서 논리학자와 같은 지식인들은 사람들이 ‘코뿔소 전염병’에 대해 진중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방해한다. 그들은 자신은 코뿔소가 되지 않는 것 마냥 태도를 취하지만 그들도 똑같이 코뿔소로 변할 뿐이다. 중립은 방관자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남들이 열띤 토론을 하는 모습을 관조적인 태도로 지켜보는 것은 어찌 보면 비겁하다고 생각된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왜 사람들은 코뿔소가 되었을까?’ 코뿔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와 같이 본질적인 문제를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뿔소의 종류가 무엇인지, 뿔은 몇 개인지, 코뿔소를 어디서 발견했는지 와 같은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
| 우*수 | 회피성의 중립도 존재하지만, 신중한 선택으로 간주되는 중립도 있다. 온라인상과 같이 제3자로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누구 하나의 편을 드는 것은 설부른 판단일 것이다. 만약 내가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한정된 정보 내에서는 확고한 의견이 누군가의 마녀사냥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중한 판단의 중립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나온 의견들처럼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립만 고수하는 것은 중립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3. 명문장 공유하기

| | |
|-----|---|
| 김*원 | “저런, 내가 괴물이라니, 내가 괴물이라니! 원통해, 코뿔소로 변할 수 없다니, 결코, 결코.....! 난 변할 수가 없어. 하지만, 코뿔소가 되길 원해! 기꺼이 원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내 모습은 얼마나 추한가! 원래의 자기 모습을 지키려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가!” (292) |
|-----|---|

| | | |
|--------------------------|------------|--|
| | | <p>코뿔소가 되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던 베랑제에게서 사랑하던 여인 데이지가 떠나가자 그는 매우 흔들린다. 이 문장은 그녀가 떠나기 전까지 “그들은 끔찍해!”라며 코뿔소를 비난하던 그가, 데이지가 떠남과 동시에 코뿔소의 아름다움에 흔들리게 된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했다. 데이지에 대한 사랑의 크기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명문장으로 뽑게 되었다.</p> |
| | <p>안*민</p> | <p>**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맞서서 나를 방어하겠어! 난 최후의 인간으로 남을 거야. 난 끝까지 인간으로 남겠어! 행복하지 않겠어!” (293)</p> <p>앞서 나온 문장에서 데이지에 대한 그의 사랑이 표현되었다면, 이 문장은 그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의 친구였던 장이 먼저 코뿔소로 변하고,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 남아주기로 했던 데이지마저도 떠나가고 나니 베랑제는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어떠한 우정과 사랑도 그가 인간으로 남겠다는 신념을 막지 못했다. <코뿔소>라는 세계 안에서 책의 제목처럼 ‘코뿔소’가 되지 않은 베랑제의 투지가 매우 잘 느껴지는 문장이었다. 모두가 코뿔소가 된 사회에서 일으킬 혼자 남은 인간의 사투가 궁금해졌다.</p> |
| | <p>우*수</p> | <p>장 (베랑제에게) 미술관을 방문하거나 문학잡지를 읽거나 강연회에 참석하는 거야. 그러면 자네의 괴로움도 사라지고, 정신 수양에도 도움이 되지. 그렇게 사 주 정도 보내면 자네는 문화인이 될 거야.</p> <p>‘장’은 베랑제의 친구이지만 서로는 정반대의 사람이다. 항상 말쑥한 옷차림과 잘 매여진 넥타이, 정돈된 머리를 하고 다닌다. 베랑제를 향한 그의 태도는 매우 딱딱하고 관대하지 못하다. 상대방이 자기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모욕을 뱉는 사람인 것이다. 위의 문장은 이러한 장과 베랑제의 극명한 성격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문학과 지성에 정통한 것’만이 중요하고 어떤 문제라도 미술관을 방문하거나 강연회에 참석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는 코뿔소로 변하는 자신을 ‘문학과 지성’만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코뿔소라는 이데올로기에 갇히더라도 그 안에서의 문학과 지성을 향유한다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편협한 장의 고정관념을 작가는 위의 문장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했다.</p> |
| <p>4. 인상 깊었던 장면 공유하기</p> | | |

| | | |
|--|-----|---|
| | 김*원 | <p>퇴임한 교사인 보타르가 등장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 전형적인 보수주의의 대표로, 자신이 코뿔소를 직접 보지 못했기에 코뿔소가 나타났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코뿔소의 출현이 사실로 드러나자, 가장 먼저 코뿔소의 존재를 믿고 코뿔소에 편승한다. 그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즉 명확한 것만을 믿는 실증주의자이지만 누구보다 먼저 코뿔소에게로 편승한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유리한 쪽만을 따라가는 박쥐같은 인간상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이는 현재 우리 시대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p> |
| | 안*민 | <p>데이지가 점점 코뿔소가 되어가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다. 베랑제의 사랑 고백에 대해 빈정거리고, 점점 코뿔소들의 언어에 잠식되어간다. “그래요, 그들이군요. 즐거운 모습이에요……. 매우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들이 옳았어요.” 코뿔소가 득실거리는 곳에서 둘만의 사랑 역시 무기력하게 깨지는 장면에서 이데올로기의 공포감을 느낄 수 있었다.</p> |
| | 우*수 | <p>마지막 장에서 베랑제가 저항을 외치는 장면이다. 1막과 2막을 통해 코뿔소의 등장이 자아냈던 공포와 놀라움은 온데 간데 사라지고 코뿔소의 삶이 일상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인간으로 남아 저항하려는 베랑제의 모습은 마지막 남은 유일한 인류의 희망처럼 느껴진다.</p> |

2023년 11월 10일

참가자대표 : 김*원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6차)

| | | | | | | | | | | | | | | |
|-------------------------------|--|----------|----|-----|----|--|----|--|-----|---|-----|---|-----|--|
| 북클럽 팀명 | 북 스트리트 (book street) | | | | | | | | | | | | | |
| 운영일시 / 장소 | 일 시 : 2023년 11월 17일(금요일) / 장 소 : 도서관 C.Square | | | | | | | | | | | | | |
| 참석자 명단 | 학번 | 2020**** | 이름 | 김*원 | 학번 | | 이름 | | | | | | | |
| | 학번 | 2020**** | 이름 | 안*민 | 학번 | | 이름 | | | | | | | |
| | 학번 | 2022**** | 이름 | 우*수 | 학번 | | 이름 | | | | | | | |
| | 학번 | | 이름 | | | | | | | | | | | |
|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p>[진행 도서] 에밀 아자르 - 자기 앞의 생</p> <p>1. 줄거리 1분 요약 및 소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김*원</td> <td>‘자기 앞의 생’은 파리의 뒷골목에서 살아가는 아랍계 유대인 아이 모모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때 매춘부였던 양모 로자, 매춘부인 엄마가 데리고 갈 수 없었던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한다. 어린 아이의 시각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안*민</td> <td>파리의 가난한 지역에서 사는 모모라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로부터 인생의 교훈을 얻는 것이 이 책의 큰 주축을 이룬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아주 모호하다는 것,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책이었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우*수</td> <td>가난과 인종차별, 종교 갈등과 같이 쉽게 다루기 민감한 주제들을 파리 빈민가 아랍계 아이인 모모의 시선을 통해서 그려낸 소설이다. 마냥 어둡고 딱딱한 내용의 소설이 아니라 명랑하고 휴머니즘적인 요소도 함께 있어서 더 좋았고, 후반부에서는 살짝 눈물을 흘릴 뻔 했을 정도로 감동적인 장면도 있어서 오래전에 나온 작품임에도 아직까지 명저로 손꼽히는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었다.</td> </tr> </table> <p>2. 토의</p> <p>① 모모와 로자의 관계를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인종적, 종교적 메시지</p> | | | | | | | | 김*원 | ‘자기 앞의 생’은 파리의 뒷골목에서 살아가는 아랍계 유대인 아이 모모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때 매춘부였던 양모 로자, 매춘부인 엄마가 데리고 갈 수 없었던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한다. 어린 아이의 시각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안*민 | 파리의 가난한 지역에서 사는 모모라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로부터 인생의 교훈을 얻는 것이 이 책의 큰 주축을 이룬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아주 모호하다는 것,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책이었다. | 우*수 | 가난과 인종차별, 종교 갈등과 같이 쉽게 다루기 민감한 주제들을 파리 빈민가 아랍계 아이인 모모의 시선을 통해서 그려낸 소설이다. 마냥 어둡고 딱딱한 내용의 소설이 아니라 명랑하고 휴머니즘적인 요소도 함께 있어서 더 좋았고, 후반부에서는 살짝 눈물을 흘릴 뻔 했을 정도로 감동적인 장면도 있어서 오래전에 나온 작품임에도 아직까지 명저로 손꼽히는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었다. |
| 김*원 | ‘자기 앞의 생’은 파리의 뒷골목에서 살아가는 아랍계 유대인 아이 모모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때 매춘부였던 양모 로자, 매춘부인 엄마가 데리고 갈 수 없었던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한다. 어린 아이의 시각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 | | | | | | | | | | | |
| 안*민 | 파리의 가난한 지역에서 사는 모모라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로부터 인생의 교훈을 얻는 것이 이 책의 큰 주축을 이룬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아주 모호하다는 것,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책이었다. | | | | | | | | | | | | | |
| 우*수 | 가난과 인종차별, 종교 갈등과 같이 쉽게 다루기 민감한 주제들을 파리 빈민가 아랍계 아이인 모모의 시선을 통해서 그려낸 소설이다. 마냥 어둡고 딱딱한 내용의 소설이 아니라 명랑하고 휴머니즘적인 요소도 함께 있어서 더 좋았고, 후반부에서는 살짝 눈물을 흘릴 뻔 했을 정도로 감동적인 장면도 있어서 오래전에 나온 작품임에도 아직까지 명저로 손꼽히는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었다. | | | | | | | | | | | | | |

는 무엇인가?

| | |
|-----|---|
| 김*원 | 작품 속에서 모모가 로자에 대해 '나는 로자가 유대인이든 아랍인이든 상관없다. 나한테는 그저 로자일 뿐이다'라는 말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대목이 인종이나 종교를 초월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로자의 정체성은 적어도 모모에게만큼은 그가 제공하는 사랑과 보살핌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넓게 나아가면 인종이나 종교가 다르더라도 사랑과 이해를 통해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인류애가 모든 차이와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본다. |
| 안*민 | 소설 속 세계는 인종적, 종교적 차별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지만, 모모와 로자의 관계는 이러한 사회적 장벽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둘의 모습은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그 차이가 우리를 나누는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 우*수 | 모모가 로자에 대해 "그녀는 나를 이해해. 나도 그녀를 이해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상호 이해와 공감을 통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며 인종적, 종교적 차이를 넘어서는 인간적 연결의 힘을 강조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삶과 죽음이 모모의 성장과 성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지?

| | |
|-----|--|
| 김*원 | 모모는 삶과 현실의 조우를 맞닥뜨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파리의 빈민가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가장 가혹한 면을 경험한다. 로자가 돌보는 많은 아이들과 그녀 자신의 삶은 모모에게 삶의 불안정성과 투쟁을 일깨워준다. 예를 들어, 로자가 아프고 약해지는 장면에서 모모는 "로자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한다. 삶과 죽음은 그에게 삶의 취약함과 죽음의 불가피성을 깨닫게 하고, 이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한다. |
| 안*민 | 모모는 로자와의 관계를 통해 죽음을 더 가까이에서 체험하게 된다. 로자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별의 슬픔은 그에게 삶의 소중함과 한계를 일깨워준다. 로자의 건강이 악화될 때 모모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두렵다"고 말하며 이러한 감정은 그가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를 통해 내면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

| | |
|-----|---|
| 우*수 |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모는 로자의 죽음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삶의 의미와 죽음의 자연스러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된다. 로자의 죽음 후 모모가 느끼는 슬픔과 혼란은 그가 인생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사유하게 만들고 모모를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③ 소설 속에서 사회적 소외가 각 캐릭터의 인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 |
|-----|---|
| 김*원 | 어린 모모는 세계란 무엇인가 인식할 수 있다. 모모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환경에서 자라고 모모가 보고 배우는 것은 주변의 가난과 고통이다. 예를 들어, 모모가 "왜 우리는 항상 가난하고, 왜 항상 누군가가 죽어야 하나?"라고 묻는 장면은 모모가 경험하는 사회적 소외가 세계에 대한 그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환경은 모모에게 삶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부여한다고 생각한다. |
| 안*민 | 로자의 애정과 보살핌이다. 로자는 전직 매춘부로, 그녀 자신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모를 포함한 여러 아이들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제공한다.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라는 로자의 말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환경 속에서도 서로 연대하며 인간적인 애정과 돌봄이 어떻게 캐릭터를 형성하는지 보여준다. |
| 우*수 | 모모와 로자의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인 것 같다. 소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환경 속에서도 인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예를 들어, 모모와 로자 사이의 깊은 유대감, 모모가 주변 인물들과 맺는 관계 등은 그가 사회적 소외감을 극복해내고 인간성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모가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감정과 성찰은 그의 인간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본다. |

3. 명문장 공유하기

| | |
|-----|--|
| 김*원 | "안락사 말예요, 안락사를 시켜달라구요. 아줌마가 더이상 고통받지 않게 말예요." (262) 이 대사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로자를 위해 모모가 카츠 선생에게 안락사를 부탁하는 장면이다. 성인의 시선으로 본다면 화들짝 놀라 모모를 만류하는 반응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모모라는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
|-----|--|

| | |
|-----|--|
| | <p>로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모모의 절박한 소망이 표현되고 있다. 그녀가 그만 고통받기를 원하는 모모의 순수한 사랑과 애정이 너무 나도 인상깊었다.</p> |
| 안*민 | <p>"하밀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기 전에 한 말이 맞는 것 같다.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 (중략) 사랑해야 한다." (307)</p> <p>이 문장은 작품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짚고 강력하게 전달한다.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주제인 사랑의 필수성과 가치를 요약하며, 깊은 인상을 남겨준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상처 받은 로자와 모모,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다른 캐릭터들을 통해 사랑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상처를 극복하게 만드는지를 강조한다. "사랑해야 한다." 이 문장을 통해 사랑의 힘과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p> |
| 우*수 | <p>"나는 식물인간으로 세계 기록을 세운 미국인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심한 고행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십자가에 십칠 년여를 매달려 있는 썸이니까. 더 이상 살아갈 능력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의 목구멍에 역지로 생을 넣어주는 것보다 더 구역질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296)</p> <p>앞서 나온 모모가 카츠 선생에게 로자의 안락사를 부탁하는 이유와도 연결될 것이다. 이 문장은 삶의 질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제기한다. 이러한 모모의 순수하면서도 깊은 사고는 과연 삶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삶이 죽음보다 값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무엇이 비인간적인 행위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p> |

4. 인상 깊었던 장면 공유하기

| | |
|-----|--|
| 김*원 | <p>로자의 병원 방문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모모든 병든 로자를 병원에 데려간다. 로자가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사회적 소외와 의료 체계의 불평등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듯 하다. 로자와 모모 사이의 깊은 유대감과 순애를 강조하는 동시에 잔혹한 사회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p> |
| 안*민 | <p>모모가 안락사를 요청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 모모가 로자에 대해 느끼는, 로자만을 향한 사랑과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모모의 절박함이 많이 와 닿았다.</p> |
| 우*수 | <p><u>로자의 죽음과 모모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다.</u> 소설</p> |

| | |
|--|---|
| | <p>후반부에서 로자의 죽음과 그에대한 모모의 반응은 굉장히 인상깊다. 로자의 죽음을 통해 모모는 삶의 의미와 인간의 죽음의 자연스러움을 깊게 이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모모가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했다.</p> |
|--|---|

2023 년 11 월 17 일

참가자대표 : 김*원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7차)

| | | | | | | | | | |
|-------------------------------|--|----------|----|-----|----|--|----|-----|---|
| 북클럽 팀명 | 북 스트리트 (book street) | | | | | | | | |
| 운영일시 / 장소 | 일 시 : 2023년 11월 24일(금요일) / 장 소 : 도서관 C.Square | | | | | | | | |
| 참석자 명단 | 학번 | 2020**** | 이름 | 김*원 | 학번 | | 이름 | | |
| | 학번 | 2020**** | 이름 | 안*민 | 학번 | | 이름 | | |
| | 학번 | 2022**** | 이름 | 우*수 | 학번 | | 이름 | | |
| | 학번 | | 이름 | | | | | | |
|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p>[토의 내용 요약] 앞서 읽은 책 속 등장인물 중에서 최악의 인물 8명을 선정함. 그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각자 1명씩 선정하였고, 다시 한 번 전체 투표를 진행하였음. 최악의 인물로 선정하게된 이유에 대해 각자 말하는 시간을 가졌고, 토의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음. 또한, 작품 속 인물의 심리를 추측해보며 작품을 한층 더 깊게 이해할 수있는 시간이 되었음.</p> <p>[토의 내용] ① 각자 작품 속 최악의 인물을 1명씩 선정하고, 그 이유 공유하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김*원</td> <td> 필자는 급류라는 책에서 도담의 아빠로 등장하는 최창석을 최악의 인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인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솔의 엄마를 상대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최창석의 행동이 보통의 상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 안의 누군가가 아픈 상황에서 가장으로서 부인을 간호하고, 집안을 지키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가족들을 외면해버리는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불륜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거나 가족들에게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다면 불륜의 행각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창석은 동네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정도로 과감하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창석은 자신에 관한 소문으로 상처받을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불륜이 큰 배 </td> </tr> </table> | | | | | | | 김*원 | 필자는 급류라는 책에서 도담의 아빠로 등장하는 최창석을 최악의 인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인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솔의 엄마를 상대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최창석의 행동이 보통의 상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 안의 누군가가 아픈 상황에서 가장으로서 부인을 간호하고, 집안을 지키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가족들을 외면해버리는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불륜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거나 가족들에게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다면 불륜의 행각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창석은 동네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정도로 과감하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창석은 자신에 관한 소문으로 상처받을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불륜이 큰 배 |
| 김*원 | 필자는 급류라는 책에서 도담의 아빠로 등장하는 최창석을 최악의 인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인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솔의 엄마를 상대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최창석의 행동이 보통의 상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 안의 누군가가 아픈 상황에서 가장으로서 부인을 간호하고, 집안을 지키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가족들을 외면해버리는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불륜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거나 가족들에게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다면 불륜의 행각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창석은 동네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정도로 과감하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창석은 자신에 관한 소문으로 상처받을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불륜이 큰 배 | | | | | | | | |

| | | |
|--|------------|---|
| | | <p>신감을 느끼게 한 이유는 그의 평소 행실 때문입니다. 최창석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존경받는 인물로서 등장합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를 칭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역시도 자랑스러운 아빠의 역할을 자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쌓아왔던 평소 행실에 완전히 배반하는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불륜 사건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받아야 했던 피해는 방대했고, 최창석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최악의 인물로 선정하게되었습니다.</p> |
| | <p>안*민</p> | <p>필자는 사양이라는 책에서 나오지로 등장하는 인물을 최악의 인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그의 무책임한 행동들로 인해 가족들이 받은 상처가 방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병으로 인하여 위독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자신의 생사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보다 자식이, 아오지가 먼저였을 어머니에게 자신의 생사조차 알리지 않으며 어머니가 심란한 상태를 지속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기다림을 지속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필자마저 마음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더불어 나오지는 아편중독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아편중독에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나아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부모님과 형제에게 돈을 빌리며, 그 돈으로 술을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자살을 하게 되고, 영영 가족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필자는 나오지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가족들이 받은 상처로부터 회복할 시간을 주기는 커녕 더욱 큰 상처만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조차 자살이라는 명목으로 가족들의 곁에서 영원히 회피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며 무책임한 인물이자 최악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p> |
| | <p>우*수</p> | <p>필자는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에서 신학교 선생님들을 최악의 인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스 기벤라트라는 주인공이 자살을 선택하게 만든 주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공부에 관한 압박감을 겪느라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한스 기벤라트를 선생님으로서 지</p> |

| | |
|--|--|
| | <p>지해주기는 커녕 궁지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한스 기벤라트를 세뇌하며, 그가 겪고 있는 고통들을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한 이유는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 한스 기벤라트를 앞으로 내세우고, 그 뒤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한스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대신 충족시켜주는 존재일 뿐, 그를 하나의 인격으로 인지하고 존중해주려는 태도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 유약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한스 기벤라트는 결국, 모든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의 신학교 선생님들이 방관자를 넘어 자살을 유도한 가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말을 알게된 후, 필자는 한 없이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아도 모자란 시기에 단 한명의 지지할 사람도 없이 혼자 겪어냈어야했을 한스 기벤라트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위하는 선생님이었다면, 한스 기벤라트가 신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 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p> |
| | <p>② 최악의 인물 1명을 최종 선정하고, 그 이유 공유하기</p> <p>공통 의견</p> <p>저희는 최종적으로 최악의 인물을 급류의 최창석으로 선정하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가장 많은 인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과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최창석을 가장 진심으로 애정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인의 믿음과 딸의 유대마저 저버리고 도담과 도담의 엄마, 해솔이라는 인물들에게 각각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창석을 진심으로 애정했던 사람들은 모두 원래의 삶으로 복귀시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이렇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지만, 그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회피를 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원망할 대상도 이유를 물을 대상도 설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저희는 최창석에게 상처를 받은 인물들과 같이 영원히 그의 돌발적인 행동에 관해 의도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최악의 인물로 선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모두 원래의 삶으로 hip하게 돌아왔다고 한들, 끝내 최창석을 잊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에 그가 남기고 간 상처는 영원</p> |

| | |
|--|------------------------|
| | 불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2023 년 11 월 24 일

참가자대표 : 김*원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8차)

| | | | | | | | | |
|-------------------------------|---|---|----|-----|----|--|----|--|
| 북클럽 팀명 | 북 스트리트 (book street) | | | | | | | |
| 운영일시 / 장소 | 일 시 : 2023년 12월 1일(금요일) / 장 소 : 도서관 C.Square | | | | | | | |
| 참석자 명단 | 학번 | 20206410 | 이름 | 김시원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204130 | 이름 | 안혜민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221062 | 이름 | 우지수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 이름 | | | | | |
|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p>[토의 내용 요약] 앞서 읽은 책 중에서 최고의 명문장 32개를 선정함. 그중에서 가장 좋았던 대표적인 명문장을 1개씩 선정하였고, 다시 한번 전체 투표를 진행하였음. 각자 개인이 좋았던 명문장을 소개하고, 그 이유에 관해 설명함. 공통된 의견으로 최고의 명문장 1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설득력이 요구되었음. 책에 대한 이해도도 확인할 수 있었고, 각자 다르게 가져온 명문장에 관해 흥미를 느낄 수 있었음.</p> <p>[토의 내용] ① 각자 작품 속 최고의 명문장을 1개씩 선정하고, 그 이유 공유하기</p> | | | | | | | |
| | 김시원 | <p>필자는 급류라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라,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해솔을 사랑하겠다고."라는 문장이 가장 좋았다. 그 이유는 먼저, 개인적으로 필자는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할 때 영원히 사랑하자는 말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말을 낭만적으로 사용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사람은 필멸하는 존재이기에 영원을 약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허황된 말이라고도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전형적인 고백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다는 것이 느껴져서 좋다고 생각했다. 낭만적인 말로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것보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 더욱 눈물짓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말을 기점으로 해솔과 도담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고, 확실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좋았다. 이 말은 즉, 이제 너에게 헌신</p> | | | | | | |

| | | |
|--|------------|--|
| | | <p>하겠다는 다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은 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관통하고 있기도 하다. 도담은 작품 속에서 영원을 믿지 않는 아이처럼 그려지지만, 사실 그녀는 누구보다 영원을 믿었던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그녀의 아버지, 남자친구 등 모든 것은 떠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상실의 아픔이 있었지만, 이 문장을 통해 그녀가 어느 정도 상처를 극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에게 더 영원을 찾을 수는 없을 테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솔에게 영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문장을 보고 덩달아 슬픔을 느꼈다.</p> |
| | <p>안혜민</p> | <p>다자이 오사무의 짧은 단편 <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죽을 생각이었다. 올해 설날, 옷감을 한 필 받았다. 새해 선물이다. 천은 삼베였다. 회색 줄무늬가 촘촘히 박혀 있었다. 여름에 입는 옷이리라. 여름까지 살아 있자고 생각했다." 나오지는 유서에 "어머니의 유품인 삼베 기모노. 그걸 내년 여름에 내가 입을 수 있게 누나가 수선해 주셨잖아요? 그 기모노를 내 관에 넣어주세요. 입어보고 싶었거든요."라고 적는다. 다자이 오사무 그 자체의 투영이 일어난 것 같아 전율이 돋았다. 또한, 매 순간 마약과 술에 취해 있던 나오지는 간밤의 취기는 가신 채 맨정신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이 좋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귀족입니다."를 외치며 그동안 부정해왔던 자신을 스스로가 인정해 준다는 점이 애뜻하게 다가왔다.</p> |
| | <p>우지수</p> | <p>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작품에서는 "그는 반드시 동급생들을 앞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대체 왜 그래야 할까? 그 이유는 한스 자신도 알지 못했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 문장은 작품 속 주인공인 한스 기벤라트가 처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면서 이 책의 큰 흐름을 관통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했다. 더불어 현대의 사회마저 꼬집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스 기벤라트를 비롯해 현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근원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이 상태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상태가 지속한다면 자신의 건강까지 잃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자신을 한계로 몰아붙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문장을 통해 자신이 힘듦을 느낀다면, 잠시 쉬어도 된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이 말을 들었다면, 한스 기벤라트</p> |

도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② 최고의 명문장 1개를 최종 선정하고, 그 이유 공유하기

공통 의견

저희는 최종적으로 다자이 오사무의 단편 <>에 나오는 문장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현대의 사회와 생각이 이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사회는 정신과 진로에 관해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신질환을 더는 창피한 것으로 여기거나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양에 등장하는 시대에서는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신질환에 관해 관심도도 적었고, 전반적인 이해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는 사양이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아오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중독된 상태였고, 그에 따라 우울증이 동반되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오지에게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죽을 생각이었다. 올해 설날, 옷감을 한 필 받았다. 새해 선물이다. 천은 삼베였다. 회색 줄무늬가 촘촘히 박혀 있었다. 여름에 입는 옷이리라. 여름까지 살아 있다고 생각했다." 라는 문장을 통해 현대의 우울증 환자에게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과 유사해서 더욱 와닿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맨정신으로 죽는다는 것이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평생 알콜이나 마약에 중독되어 살아갔던 아오지가 자신의 유서에 이런 말을 남겼다는 점이 자신도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울증을 동반한 채 자살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고 싶어했던 인물이라는 것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2023년 12 월 1 일

참가자대표 : 김시원